

# 2020 작은도서관 이야기

사회적거리는 멀리, 독서는 가까이

## 2020 작은도서관 이야기



2020 작은도서관 이야기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9 791196 680527  
ISBN 979-11-966805-2-7

2020

작은도서관 이야기

# 2020 작은도서관 이야기

사회적거리는 멀리, 독서는 가까이

# contents

## INTRO

목차  
들어가는 말  
2020 작은도서관 이모저모

### part 1. 공립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웃는책 ..... 12  
세곡도서관 ..... 17

### part 2. 사립 작은도서관

#### I. 아파트 작은도서관

위례반디 작은도서관 ..... 24  
앞장어린이도서관 ..... 29  
위드파크환경도서관 ..... 33

#### II. 교회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버드나무에부는바람 ..... 37  
숲속 작은도서관 ..... 42

#### III. 마을공동체 운영 작은도서관

생글 작은도서관 ..... 46  
토닥토닥그림책 작은도서관 ..... 51  
뫼뫼네도서관 ..... 56  
돌멩이국 작은도서관 ..... 61

#### IV. 특화 작은도서관

청소년인문학도서관 Doing ..... 66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 ..... 71

#### V. 개인 운영 작은도서관

다올책사랑방 작은도서관 ..... 76  
애기똥풀 작은도서관 ..... 81

### part 3.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이야기

비대면 서비스 공모전 ..... 88  
작은도서관 아무튼, 독서 ..... 98  
작은도서관 FAQ ..... 101

## 들어가는 말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모든 이를 품으며 마을공동체 문화를 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 삶 가까이 있는 생활밀착형 내 집앞 작  
은도서관은 전국 7천여 개가 있습니다. 작은 규모이지만 그 안에  
서 피어나는 진솔한 이야기는 진한 사람 냄새가 묻어납니다.

‘2020년 작은도서관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와  
동행하게 된 작은도서관들의 모습도 함께 담았습니다. 운영진들  
은 처음 겪게 된 상황 속에서도 저마다 자신만의 답을 찾아갔습  
니다.

오롯이 이용자들을 위한 그들의 노력에 몽클했습니다. 오롯이 이  
용자들을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자 한 분 한 분의 노력은 가슴 몽  
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인 이 기록은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서 소개  
한 도서관 중 우수 운영사례와 특화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구성  
했습니다.

아울러 운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  
지’의 이야기도 수록했습니다. 이 사례집이 지역의 독서문화 기  
반을 만들고 싶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어 작은도서관 이야기가 한  
층 더 풍성해지길 기대합니다.

# 2020 작은도서관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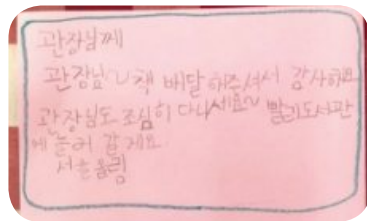
## 1월 이편한사랑나눔 작은도서관

새해를 맞이해 송년음악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 2월 숲속 작은도서관

6학년 이유찬 학생의 재능기부로 신나는 종이접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3월 그나라어린이도서관

비대면 책 배달 서비스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사랑스러운 편지가 도착했다.



## 4월 책소리 작은도서관

신간도서 소개, 도서관 이용안내 등 다양한 소식을 담은 소식지이다.



## 5월 작은도서관 웃는책

천일어린이도서관이 리모델링 후 <작은도서관 웃는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 6월 진안푸른꿈 작은도서관

코로나19 상황으로 멈췄던 동아리 활동을 철저한 방역 후 조심스레 시작해보고 있다.



## 7월 우주 작은도서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백희나 작가의 원화 전시회를 열었다.



## 8월 청개구리 작은도서관

동아리 '책이있는수다'는 비대면으로 계속 함께 책을 읽고 있다.



## 9월 포레스트 작은도서관

비대면 대출 서비스 '지바프로'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 10월 풍낭 작은도서관

지침에 따라 시시각각 운영시간이 변동되므로 이용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휴관 공지문을 작성했다.



## 11월 힐숲 작은도서관

누구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야외 원화 전시를 진행했다.



## 12월 이루다함 작은도서관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린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흠뻑 빠졌다.

## Part. 01

---

### 공립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웃는책

세곡도서관

# 함께해서 더 풍성한 도서관

## 작은도서관 웃는책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는 어린이공원을 품은 큐브형 유리 건물의 도서관이 있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 놀이터를 지나면 천호동의 사랑방 작은도서관 웃는책에 다다른다. 열린 사회 강동송파시민회가 위탁 운영하는 웃는책은 민간단체의 운영 노하우와 구청의 공공성이 결합되어 공립 작은도서관의 좋은 예로 손꼽히고 있다.



운영	주소	유형
평일 09:30~18:30 토 10:00~17:00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42길 60(천호동 노외주차장) 1,2층	공립 작은도서관 <a href="http://www.gdlibrary.or.kr/small/">http://www.gdlibrary.or.kr/small/</a>

### 모두 어울리는 정겨운 쉼터

천호동 주택가 사이 천일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도서관은 다정한 느낌을 물씬 풍긴다. 바쁘게 흘러가는 도심과 살짝 떨어진 웃는책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도서관 앞 공원은 장기를 두는 어르신, 육아 스트레스를 수다로 날리는 엄마들,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모이는 동네 숨은 공간이다. 이 때문에 시원한 물 한 잔을 먹으려다 책을 읽고 가는 사람,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도서관에 발길을 잡힌 사람들까지 색다른 이유로 도서관을 찾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 물론 도서관에 한 번만 들어와도 그 매력에 빠져 자리를 잡고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도 많다. 처음엔 이런 작은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드나들어 도서관보다는 사랑방 같은 느낌을 줬다.

작은도서관 웃는책은 얼마전 새로운 모습으로 이용자들을 맞았다. 사실 웃는책은 강동구에서 많은 공로를 인정 받으며 활동한 '천일어린이도서관'이었다. 천일어린이공원에 위치해 천일어린이도서관이라 이름 붙여 오랜 시간 활동해온 도서관이 지켜온 이름을 바꾸고 '작은도서관 웃는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도서관을 오랜 시간 이용해온 이용자는 새로운 도서관명이 낯설지 않다. 공식 명칭은 천일어린

이도서관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웃는책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이다. '웃는책'은 고양시의 전통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이었던 어린이도서관웃는책에서 그 이름을 따다.

도서관이 사정으로 인해 폐관할 무렵 천일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서가부터 운영 노하우까지 많은 것을 물려받았다. 천일어린이도서관 운영진들은 웃는책을 이어가고자 이번 리모델링을 하면서 '작은도서관 웃는책'으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오히려 더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명칭 덕분에 도서관 이미지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작은도서관 웃는책은 약 80평 남짓한 공간으로 2층까지 알차게 구성했다. 1층에는 종류별 그림책 서가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울터가 있고, 층 사이에는 공간을 활용한 원목 계단 서가가 있다.

1층보다 조용하고 고즈넉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2층에는 만화책과 성인도서 공간 채우고 있





고, 원목톤으로 꾸며져 통일된 느낌을 준다. 탁 트인 통유리창 앞 열람석은 도서관 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 있어 언제나 인기 만점이다.

### ■ 책 읽기를 전파하다

작은도서관 웃는책은 일상과 함께하는 책 읽기를 꿈꾼다. 우리의 평범한 24시간 속 자연스레 책이 따라오는 삶을 꿈꾸며 운영진들은 도서관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다. 공립 작은도서관이지만 민간단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사립 같은 공립이라 많이들 칭한다. 민간단체가 갖고 있는 한계를 공공의 행정력으로 보완해주기 때문에 운영의 지속성과 같은 고민은 좀 덜었다. 오히려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느끼기 어려운 독특하면서도 창의적인 분위기가 풍긴다.

웃는책은 일상 속 책 읽기를 지향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독서지도를 하기보단 책과 연결되는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들이 먼저 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운영진들은 책과

친해지는 것이 바탕이 되어 독서동아리나 문화 프로그램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는 일상적인 책 읽기 정착을 위해 ‘그림책 함께 책 읽기’를 진행한다. 매달 한 명의 작가를 정해 책을 함께 읽는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소감을 적는다. 궁금했던 질문이나 인상 깊었던 장면의 이야기를 담아 전달하면 작가들은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답장을 보내주기도 한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작가가 직접 도서관에 방문해 책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웃는책은 도서관 앞 공원을 100% 활용하고 있다. 그림책이 가득한 책수레를 끌고 나가면 신나



게 뛰어놀던 아이들은 어느새 시원한 그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책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도서관 앞 바깥 서가 ‘책읽는집’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림책부터 큰글자 성인도서까지 비치했다.

이외에도 그림책을 읽고 오감으로 표현하는 그림책몸놀이, 어려운 책을 함께 읽고 지성을 갖춘 사람이 되자는 목표를 가진 동아리 마늘과썩, 엄마들이 함께 책을 읽는 그림책모임 등 다양한 동아리도 함께 운영한다.

웃는책은 직원 3명과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운영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운영진들과 도서관 동아리 대표, 프로그램 강사,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단체들끼리 힘을 모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다. 비슷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함이다. 협동조합 설립으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지역 연계 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 운영진과 이용자가 구별없는 도서관

책과 함께하는 일상을 꿈꾸며 10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킨 작은도서관 웃는책. 자칫 공립 작은도서관이 가질 수 있는 딱딱함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하고 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독서 문화 전파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공립 작은도서관의 특성상 재정적 애로사항은 없지만 고용의 지속성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김자영 관장은 ‘작은도서관 관장’이라는 직업을 참 좋아한다고 말한다.

“작은도서관 관장이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들처럼 나를 입증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점이 참 좋아요.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성장해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며 부듯함을 느끼고, 동아리 모임을 하며 자신의 적성을 찾아 전문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작은도서관이 가져오는 변화가 항상 감사하다는



운영진들. 앞으로 작은도서관 웃는책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의 코로나19처럼 현대인들은 계속해서 위기를 겪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위로 받을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필요해요. 바로 작은도서관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에게 정서적인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를 보듬으며 치유와 회복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작은도서관이 7,000개 이상 생기면서 작은도서관이 갖는 공공성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작은도서관 웃는책. 서로가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에 작은도서관 웃는책이 자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민들의 걸을 오랜 시간 지키길 기대해본다.



# 여가와 일상의 공간, 세곡동 문화센터

## 세곡도서관

세곡도서관은 도심과 조금 떨어진 서울시 강남구 최남단 세곡동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이다. 복잡한 일상을 뒤로하고 이곳을 찾는 이용자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고 소통하며 삶의 에너지를 얻는다.



### 운영

평일 09:00~21:30  
주말 09:00~17:00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286,  
(울현동) 세곡도서관

### 유형

공립 작은도서관



## ■ 문턱 낮은 우리 동네 도서관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 세곡동 주민센터 2층에는 보물 같은 지식문화센터가 숨어있다. 느림의 미학을 느끼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 곳. 세곡도서관은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강남구 위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지역 주민들과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는 공간이다. 때로는 엄마처럼 포근하게, 때로는 친구처럼 친근하게 이용자를 대하는 운영 방식으로 동네 사랑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도서관은 얼마 전 새 옷을 입었다. 2003년 개관 이후 시설이 노후 되고 늘어나는 장서로 공간 활용이 어려워져 2019년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으로 도서관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한 자리를 오래 지키며 계속 늘어나는 장서가 고민이었던 운영진들에게 리모델링 소식은 더할나위 없는 기쁜 소식이었다. MDF서가는 나무향이 물씬 풍기는 원목서가로 바뀌었고 편안한 독



서를 돕는 따뜻한 조명 등이 어우러져 북 카페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오전 시간 주 이용층은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과 엄마들이다. 이외에도 머리를 식히고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데, 이유는 세곡도서관만의 힐링형 프로그램들 때문이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도서관은 세곡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 ■ 힐링과 어울림이 공존하다

세곡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운 책 놀이터, 어른들에게는 문화체험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들을 만난다. 그림책으로 마음 읽기, 그림책 예술학교 등 그림책을 매개체로 다채로운 문화강좌를 기획 운영하고 있다.

운영진들은 여러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도



서관문화진흥원이 주관한 공모사업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 1단」에 선정돼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얻었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 1단」 사업은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과 박물관·미술관의 공간을 활용해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연 전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



곡도서관은 <삶을 그리다>를 주제로 이용자들과 나만의 인생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림책을 만들어보고 싶었던 주민들이 도서관에 모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작품을 만들었다. 전력질주하며 달려온 삶을 뒤돌아 보기도 하고, 어린 시절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가족의 사랑, 나눔, 코로나로 바뀐 일상의 삶 등을 나누고 그렸다.

“그림을 그리면서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많이들 말씀해주세요. 또 도서관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도 해주시더라고요. 그저 함께 그리고 나눈 것뿐인데 좋게 말씀해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또 큰 보람도 느끼고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도서관답게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돼있다.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1 작은도서관 책 친구 사업에 선정돼 그림책으로 독후활동을 하는 ‘그림책으로 마음 읽기’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과 그림책을 읽고 느낀점을 그리고, 점토를 이용한





놀이를 하며 창의력을 키우는 활동을 함께 한다.

이 밖에도 '성인 독서토론 모임', '만들고 즐기는 수학수업' 등 도서관에서 즐겁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한다. 주민들에게 세곡도서관은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웃들을 만나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인 셈이다.

### 모두가 누리는 맞춤형 공간으로

열정적인 운영진들의 노력으로 개관 이후 탄탄한 운영을 자랑해온 세곡도서관. 앞으로는 문화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

서관 서비스 개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다. 누구나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주민 맞춤형 도서관을 목표로 달려가려 한다.

2003년 개관해 어느덧 18년째를 맞은 세곡도서관. 앞으로도 지역 어린이들이 맘껏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들이 힘들 때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건재해주길 기대해본다.



## Part. 02

---

### 사립 작은도서관

#### I. 아파트 작은도서관

위례반디 작은도서관  
앞짱어린이도서관  
위드파크환경도서관

#### II. 교회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버드나무에부는바람  
숲속도서관

#### III. 마을공동체 운영 작은도서관

생글 작은도서관  
토닥토닥그림책 작은도서관  
뒷동네도서관  
돌멩이국 작은도서관

#### IV. 특화 작은도서관

청소년인문학도서관 Doing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

#### V. 개인 운영 작은도서관

다올책사랑방 작은도서관  
애기똥풀 작은도서관



# 지역 독서 문화를 이끄는 선두주자

위례반디 작은도서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위례반디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힘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이다. 함께 책 읽기를 추구하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위례반디 작은도서관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작은도서관 발전 유공 상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운영	주소	유형
평일 10:00~19:00 토 10:00~18:00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16, (창곡동, 위례 호반베르디움) 위례호반베르디움	사립 작은도서관

## ■ 情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공간

아파트로 둘러싸인 성남시 창곡동에는 도란도란 정겨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있다. 기분 좋은 소리를 따라가면 창곡동의 독서 문화를 견인하고 있는 위례반디 작은도서관이 보인다. 높은 아파트 사이 다양한 연령대의 자원활동가들이 운영하는 도서관은 아이들은 책을 읽으며 미래를 준비하고, 어른들은 바쁜 일상 속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다.

2017년 첫발을 뗀 위례반디 작은도서관은 입주자들의 관심으로 시작됐다. 도서관이 위치한 위례신도시는 입주 당시 전국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기존에 존재했던 동네가 아니어서 입주민들끼리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때, 아파트 한쪽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교류를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이었다.

처음 시작은 책 기증을 받으면서 시작했다. 방송으로 “도서관에서 봉사하실 분이 있으면 내려와

주세요”라고 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았다. 젊은 청년층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모여 기증받은 책을 정리하고, 도서관을 쓸고 닦았다. 그 과정에서 언니가 되고, 동생이 되며 정을 쌓았다.

그렇듯한 서가를 완성한 사람들은 자원활동가라 불리기 시작하며 작은도서관 개관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성남시 우수 작은도서관 탐방을 다니며 현장의 노하우를 들었고, 자원활동가들은 어느새 1기 임원으로 불리며 2017년 7월, 도서관의 문을 활짝 열었다.

자원활동가 32명이 한 팀이 되어 지역의 독서 문화를 이끌며 전에 없던 책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다. 삭막했던 아파트 단지가 활기를 찾으며 이제는 이웃으로 함께하고 있는 입주민들은 하루하루 다른 삶을 보내고 있다. 위례반디 작은도서관은 그렇게 주민들의 생활 속에 녹아들며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 ‘모두’가 이용하는 도서관

위례반디 작은도서관은 어느 연령층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문화의 소통창구를 꿈꾼다. 모든 연령층이 고루 사용하는 위례반디 작은도서관은 어린이책과 성인책의 대출 비율이 비슷하다. 도서관 초기부터 다양한 연령대의 임원진들 덕분에 다양한 이용자 확보가 가능했던 덕택이다.



현재 도서관을 이끌고 있는 4기 임원진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임원진들의 자녀들 또한 연령대가 다양해서 문화프로그램이나 수서 할 때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있다. 자칫하면 어린이 또는 어른만 이용하는 도서관이 됐을 수도 있는데 여러 연령대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하다 보니 비슷한 비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임원진은 모두 체계적인 팀으로 나뉘어져 있다. 1년의 임기를 지내는 1명의 관장과 기획팀, 장서팀, 홍보팀으로 나누어 각 부서끼리 회의를 하고 안건을 해결한다. 적재적소에 배치된 임원들은 운영의 활성화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활발한 운영의 또 다른 비결은 다채롭고 질 좋은 문화프로그램 덕택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여러 동아리다. 엄마들이 고소한 원두를 내리며 티타임을 갖는 커피 동아리, 개관할 때부터 시작해 수많은 책을 함께 읽은 반디 독서 모임, 솜씨 좋은 어르신이 시작해 어느



새 일주일에 2번씩 만나는 뜨개질 동아리, 어린이들이 영어책을 함께 읽는 신비의 방, 그림책 읽는 엄마들의 모임 그림책 동아리까지 활발하다.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여가 시간을 보내는 취미를 개발할 수 있는 동아리들로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재능 있는 이용자들이 직접 재능기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중학교 언니, 오빠들이 진행하는 초등학교 대상의 보드게임, 이용자들의 솜씨를 엿볼 수 있는 캘리그래피,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키즈 가드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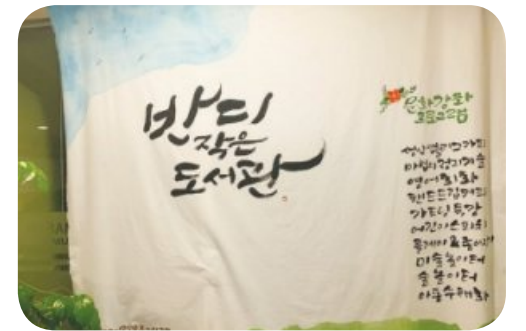
위례반디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보이지 않는 손



으로 여러 협력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협동육아를 위해 어린이집과 연계하고, 어르신들의 질 좋은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정과도 연결되어 있다. 어르신들이 읽어주는 구수한 옛날 이야기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다.

1년에 한번, 위례반디 작은도서관만의 북콘서트가 펼쳐진다. 뮤지션이나 작가가 와서 영화나 책 얘기를 하며 색다른 문화를 접하는 시간을 갖는다. 다양한 행사와 먹거리 등이 어우러진 흥겨운 축제 한마당은 이용자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다.

지역의 독서 문화 확대를 위해 개관 이후 쉬지 않고 달려온 위례반디 작은도서관. 2018년에는





‘2018년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며 신생 도서관의 반란을 보여주기도 했다. 최근에는 2년 연속 경기도 최우수 작은도서관으로 선정되며 그 위상을 더 높이고 있다.

### ■ 우리 마을 속 구심점으로

위례반디 작은도서관이 지금처럼 단지 내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운영진의 열정, 성남시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 그리고 주민들의 애정이 숨어있었다. 여느 작은도서관처럼 인력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타개할 방안을 모색해나갈 생각이다.

현재 전문적인 운영의 필요성으로 1명의 사서와 자원활동가들이 열심히 운영 중이지만 전입전출로 인한 자원활동가의 감소는 무시할 수 없다. 좋은 일을 함께하자며 주민들에게 권하고 참여를 손꼽아 기다리는 중이다. 앞으로 더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내 자원활동가 모집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힘쓸 예정이다.



작은도서관은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운영진들. 활동하면서 작은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대해 더 중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마을공동체 역할부터 지역 발전 이바지까지, 작은도서관이 조금 더 부흥해서 마을이 조금 더 따스워지기를, 이웃 간 정을 나누는 세상이 자연스러워지기를 운영진들은 바란다.

앞으로도 주민들에 대한 넘치는 애정으로 독서 문화 전파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뛰겠다는 위례반디 작은도서관. 반딧불이에서 따온 도서관 이름의 ‘반디’처럼 마을을 비추는 빛으로 오랜 시간 함께하길 기대해본다.



# 앞장서서 나아가는 도서관

## 앞장어린이도서관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앞장어린이도서관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으로 엄마들이 선생님이 되어 진행하는 북스타트 사업이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다. 동네 사랑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된 도서관은 어느새 소통의 공간, 정보 나눔의 공간, 품앗이 육아의 공간으로 거듭나며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쉼터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운영

평일 10:00~18:00  
토 10:00~16:00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 주소

강원도 춘천시 지석로 64(퇴계(6)주공아파트) 퇴계주공6차 아파트 관리동 2층

###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 ■ 문화 중심 마을 만들기 일등 공신

미국 시골 마을에서 '사람을 찾으려거든 작은도서관으로 가라'라는 말이 있다. 작은도서관이야말로 지역 커뮤니티의 장이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일 것이다. 우리에게만 관공도시로 더 익숙한 춘천시에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내는 앞장어린이도서관을 만났다.

퇴계주공아파트를 살기 좋은 문화 중심 마을로 만든 1등 공신 앞장어린이도서관은 동네 주민들이 함께 만든 도서관이다. 원래 평범한 공부방이었던 공간을 주민들이 도서관으로 만들어 2008년 문을 열었다.

수많은 활동가의 열정과 땀으로 힘차게 운영해 온 도서관은 올해 12주년을 맞았다. 앞장어린이도서관은 색다른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한 명의 관장이 계속 운영하는 것이 아닌 몇 해가 지나면 새로운 관장이 부임하는 방식이다.

긴 시간 동안 수많은 관장들과 활동가들이 거쳐가며 도서관은 계속해서 성장했다. 관장이 바뀌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과 동아리들이 생겨나며 도서관의 모습도 변했다. 현재 어형종 관장은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로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며 활기찬 도서관을 만들어가고 있다.

앞장은 자원활동가들을 친근하고 귀여운 애칭

인 우렁각시라 부른다. 현재 도서관을 이끌어가는 자원봉사자는 약 20명으로 각자 자신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덕분에 활동가들은 웬만한 사서 못지않다. 실제 도서관 일을 돕다가 사서 자격증을 취득해 다른 도서관에서 사서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재능기부 활동을 하며 적성을 찾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앞장어린이도서관은 새로운 나를 알아가며 성장하는 장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꼭 한 번씩 물어본다는 도서관 이름에 '앞장'은 앞장서서 짱이 되는 도서관이 되자는 뜻으로 공모를 받아 선정했다. 앞장의 아이들은 도서관을 자신들의 아지트로 이용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방과 후 시간이나 약속 없는 주말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앞장으로 모이재!' 이 한 마디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어른들 또한 아파트 안에 믿음직한 도서관이 있어 다행이라 말한다. 전입 전출이 빠른 아파트는 이웃과의 소통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 주민



들은 앞장어린이도서관 덕분에 아파트가 활기를 찾았다며 큰 사랑을 보내준다.

## ■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과 호흡하다

앞장어린이도서관은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책과 친해질까'를 늘 연구하고, 고민의 결과를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단연 '북스타트'이다. 아이들에게 책과 친해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북스타트는 2010년 초반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지속해온 전통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림책만 보던 엄마들이 함께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독서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를



고민하며 시작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가 되면 도서관에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든다. 엄마들이 책을 읽고, 요리도 하고, 춤도 추면서 다양한 놀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엄마들은 선생님이 되고, 참여한 모든 아이들의 엄마가 된다. 근처 어린이집이나 아동기관에서도 도서관에 방문해 북스타트 수업에 참가할 만큼 앞장의 북스타트는 도서관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북스타트에서 책과 친해진 아이들이 성장해 독서동아리를 만들고, 엄마들은 북스타트가 끝나면 동아리를 결성해 함께 책을 읽는다. 북스타트에서 결성되어 책놀이를 하는 동아리는 놀짱, 꼬꼬짱, 가랑비, 라온제나가 있다.

앞장은 함께 자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추억을 선사하기도 한다. 바로 '가족캠프'이다. 1박2일로 진행되는 캠프는 한적한 시골에서 물고기를 잡고,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 옥수수과 수박을 나눠 먹으며 일상의 고단함을 씻기도 한다. 저녁이 되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아빠가 읽어주는 그림책에 흠뻑 빠진다. 한바탕 신나게 논 아이들은 꿈나라로 가면 엄마, 아빠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인생 이야기를 펼친다. 가족 캠프는 오히려 어른들이 좋아해 매년 진행되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밤새도록 책을 읽는 도서관에서 하룻밤, 화요일 오후 사서 선생님이 들려주는 그림책 읽어주는 시간, 성평등 도서관 교육, 앞장 낭송회-책을 읽어드립니다, 환경문화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독서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하고 풍성한 이야기가 있는 도서관 덕분에 아파트 일대의 독서열풍은 나날이 상승 중이다. 현재 등록된 회원 수는 약 5,000명에 달하며 앞장어린이도서관은 춘천시 작은도서관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 전 세대가 하나되는 공동체를 꿈꾸며



이렇듯 역동적인 운영을 자랑하며 춘천시 작은도서관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앞장어린이도서관. 운영진들은 별 탈 없이 운영해온 시간이 감사하기만 하다. 운영진들은 작은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이라 말한다. 자원활동가들이 있어야만 원활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함께할 사람을 찾고 있다.

오랜 시간 열심히 운영해온 도서관이 최근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으며 운영진들이 머리를 맞댔다. 도서관이 문을 닫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도서관의 공백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한 것이다. 운영진들은 앞으로 유튜브와 SNS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를 계속 고민해 더 질 좋은 독서문화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지역의 여러 기관과 연계하며 동네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 싶다는 앞장어린이도서관. 춘천시의 독서문화를 이끌 앞장어린이도서관의 앞날을 꿈꾸어 본다.



#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녹색 문화를 만든다

위드파크환경도서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 단지 내 산뜻한 풀내음이 새어나는 곳이 있다.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모토로 동네 일대를 녹색으로 물들인 위드파크환경도서관이 바로 그 주인공. 삭막한 아파트 생활 속에서 책과 사람이 모여 함께 성장하는 위드파크환경도서관을 만났다.



운영

평일 09:00~18:00  
토 09:00~16:00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양로 99, (남양동, 위드파크아파트) 관리동 3층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 ■ 생태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문화쉼터

남양동에는 높은 아파트 단지 사이, 아이들의 기분 좋은 재잘거림이 울려 퍼지는 위드파크환경도서관이 있다. 주민들 요구로 시작한 도서관은 어느새 20년째 주민들의 걸을 지키는 든든한 문화 쉼터로 그 일대를 초록빛 책 문화로 물들이고 있다.

위드파크환경도서관의 면적은 255.29 m<sup>2</sup>(약 77 평), 현재 총 장서는 12,000여 권으로 작은도서관으로는 큰 규모를 자랑한다. 도서관에 들어서면 향긋한 책 냄새와 아이들이 즐겁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작은 텐트가 눈에 띈다. 누구든 편안하게 머무르는 공간을 만들어 아늑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한편에는 귀여운 공예작품들이 전시돼있다. 솔방울, 나뭇가지, 도토리껍질, 낙엽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진 작품은 이용자들의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물씬 느껴진다.



환경 특화도서관임을 알려주는 다양한 환경도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두꺼운 생태 도감은 물론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환경·생태 동화책도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덕분에 아이들은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쉽게 배우는 중이다.

방과 후 시간을 대부분 도서관에서 보내는 아이들을 위해 학부모들과 긴밀한 연락망을 구성한 것도 또 하나의 인기비결이다. 아이들은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맞벌이 학부모들도 안전한 도서관 덕분에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한 아이들에게는 환경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어른들에게는 힐링을 선사한다. 주민들은 책을 통해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은 물론, 서로 교류하며 마을공동체라는 큰 보물을 얻는다.

## ■ 유일무이 '환경' 특화 작은도서관

책과 자연이 있는 위드파크환경도서관은 주민들



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늘고 민한다. 도시와 자연을 잇고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를 문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다.

'숲속나들이길'은 야생화와 식물 등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생태강사와 함께 창원의 둘레길을 산책한다. 회원들은 매주 산에 오르며 바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초록색 풍경과 둘레길을 걷는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환경과 자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어린이대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태숲 체험'은 인근의 숲과 공원에서 뛰어 놀며 생태를 자연스레 습득하는 프로그램이다. 꽃과 나무의 이름을 익히며 숲과 친해지고, 숲속에서 재밌는 놀이를 즐긴다. 스마트폰과 친했던 아이들도 이 시간만큼은 자연과 더불어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

환경·생태 프로그램 외에도 운영진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프로그램들은 이용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다. 토론에 빠진 인문학, 그림책 감정코칭, 찾아가는 성교육, 가을음악회, 한여름 밤의 영화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이용자들을 만난다.

주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다양한 동아리도

눈여겨볼만하다. 가까운 복지관에 방문해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말벗이 되어주는 '두런두런'은 2012년부터 활동한 장수 동아리다. 때론 악기연주와 노래로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인문학을 통해 조금 더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회원들이 모여 깊이 있는 책을 읽는 앞행아카데미, 그림책으로 아이들을 이해하는 주부들의 독서동아리 북마마 등을 활발히 운영한다.

## ■ 초록빛 꿈을 실현하는 미래 세대 자산으로

운영진들은 독서 생활화를 꿈꾸며 주민들에게 독서문화를 전파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보조금이 끊겨 도서관이 존폐위기에 놓였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았다. 보조금이 끊긴 1년 동안 마을대표회, 관리사무소, 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도서관을 지킬 수 있었다. 운영진들은 그 당시를 생각하면 힘들었



지만 몽클했던 기억이 더 컸다고 말한다.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하며 단단해진 덕분일까. 위드파크환경도서관은 창원시 평생학습시설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서 2018년 우수상, 2019년 장려상을 수상했다.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은 노력의 결실이다.

지금처럼 남양동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데는 운영진의 식지 않는 열정과 주민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운영상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주민들의 따뜻한 격려에 힘을 얻고, 그 덕분에 위드파크환경도서관의 앞날도 기대된다.

“환경 관련 이슈를 많이 접하는 요즘이에요. 자연과 환경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죠. 앞으로 위드파크환경도서관은 미래 세대와 현대인들을 위해 꼭 필요한 환경교육과 독서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예요.”

주민들의 독서 문화를 책임지는 마을 도서관이자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는 꿈터로 마을공동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위드파크환경도서관. 앞으로 남양동에서 피어날 초록빛 미래가 자못 기다려진다.



#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는 따뜻한 인문학 도서관

## 작은도서관 버드나무에부는바람

독수리를 닮은 수리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에는 인문학 바람을 불어넣는 공간이 있다. 그림책 마을을 꿈꾸며 금정동 사람들과 함께하는 버드나무에부는바람은 최원경 대표가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고 소통하며 삶의 에너지를 얻는다.



### 운영

평일 10:00 ~ 18:00  
(주말, 법정 공휴일 휴관)

### 주소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18-1 덕성빌딩 2층

###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 아이를 품고 어른도 성장하는 평생학습터

유동인구가 많은 산본 신도시와 조금 떨어진 금정동은 사람들로 북적이진 않지만 고즈넉한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조용히 동네를 거닐다 보면 금정동 주민들의 보물 같은 공간인 작은도서관 버드나무에부는바람이 보인다.

도서관은 갈릴리지역아동센터에서 시작한다. 2004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온 최 대표는 어린이들을 돌보며 인문학이 바탕이 되는 '찾아가는 희망의 교실 - 클레멘트코스', '희망 철학교실'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했다.

덕분에 어린이들은 인문학을 통해 교류하고, 성

장할 수 있었다. 지역아동센터가 성공적으로 지역에 안착하고 아이들과 추억을 쌓는 것과 동시에 최 대표는 또 다른 고민에 빠진다. 센터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간 아이들이 가정에서의 마찰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적잖게 본 것이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에게도 인문학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이를 위해선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 이 무렵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었던 터라 인문학을 토론하고,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기로 한다.

이러한 상황이 맞물려 노래방이었던 2층 공간을 개조해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작은도서관을 만들었다. 도서관 건립을



준비하면서부터 인문학을 특화 분야로 결정해 2014년 10월 지금의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도서관명인 '버드나무에부는바람'은 아동문학의 대가인 케네스 브레이엄의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에서 가져왔다. 운영진은 동화책 속 동물들이 모험을 통해 용기를 얻고, 삶의 지혜를 깨닫는 모습을 보며 도서관 운영의 방향을 찾았다고 한다.

최 대표는 "동물들이 모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처럼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인문학과 책을 통해 소양을 쌓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버드나무에부는바람이라 정했다."고 말했다.

버드나무에부는바람은 평생학습마을공간도 함께 추구한다. 최 대표는 군포시 작은도서관협의 회장직으로 8년 동안 활동할 만큼 작은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컸다. 회장으로 있을 당시, 경기도 평생학습 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보여줬다. 이를 통해 군포시 4개의 작은도서관이 평생학습마을로 선정돼 운영하고 있다.



곱씹어 읽을수록 삶의 진정한 의미와 살아갈 방향을 깨닫게 하는 인문학을 만날 수 있는 작은도서관 버드나무에부는바람.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오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다.

■ 마을사진관, 마을과 사람을 담다

버드나무에부는바람은 인문학과 평생학습을 바탕으로 전 연령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단순히 독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건강한 담론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020년 처음으로 진행한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줬다. 마을공동체를 기록하는 것을 커다란 목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엮은 그림책 만들기, 마을의 모습을 역사로 남기는 마을사진관, 동네의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곳들을 자전거로 탐방해 영상으로 만든 우리 동네 알기 프로젝트까지 마을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마을사진관은 프로필 사진부터 영정사진, 가족사진 등 대상과 내용에 관계없이 무료로 찍어주고 그 영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매우 뜻깊은 프로그램이었다. 도서관 이용자 중 한 명인 현직 방송국 카메라 감독이 자원하여 사진과 영상을 찍고, 밤새도록 편집하는 열정으로 마을의 소중한 기록을 완성했다.

마을의 이야기를 엮어 출판한 그림책 동아리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한 몫을 했다. 회원들은 직접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내용을 정리해 원고를 만들었다. 그림책에 실린 그림들도 직접 그리고 색을 칠했다. 소박하지만 정겨운 이야기가 담긴 『당신만 몰랐던 우리동네 스토리』는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가져다줬다.

인문학 독서동아리 ‘즐거운 수다’는 매년 작가와의 만남을 운영한다. 유명 작가와 함께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며 인문학에 대한 지식은 물론, 작가의 책 이야기도 함께 듣는다. 2020년에는 백수린, 김유담, 백민석, 조경아 작가 등 문단에 신선한 바람을 불려온 작가들을 만나 심도있는 인문학적 대화를 나눴다.

매해 운영하는 ‘월로우인문아카데미’도 눈여겨 볼만하다. 인문학 강의와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음표를 던져준다.

학부모 대상으로 진행한 ‘하브루타 부모교육’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반응이 뜨거웠던 프로그램이다. 하브루타는 두 사람이 짝을 이뤄 공부하는 학습법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자녀와 대화, 토론을 하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평일 오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임에도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해 열띤 교육열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외에도 열정 넘치는 청년들의 동아리 더 청년, 2013년부터 퀘트와 프랑스 자수 등을 함께 만드는 동아리 사랑한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있다.

#### ■ 골목마다 그림과 책이 가득한 마을을 꿈꾸며

2014년 개관해 올해로 8번째 생일을 맞은 작은



도서관 버드나무에부는바람의 앞으로 과제는 그림책 마을 만들기다. 최 대표는 전국의 그림책 관련 도서관을 다니며 새로운 모습을 준비하고 있다. 마을 곳곳 정겨운 그림이 그려진 담벼락, 마을의 소개를 담은 안내판 등을 구상 중이다. 금정동이 보다 생기가 돌았으면 하는 최 대표의 바람이 느껴진다.

이처럼 열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이 그렇듯 예산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군포시는 조금 나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주민들을 위해 무언가를 기획할 때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은 민간에 의해 시작해 발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발전될 때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임대섭의 마을문고 설립 운동으로 1만 개가 넘는 문고가 생겼다가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처럼 지금의 작은도서관 운동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긴 안

목을 가지고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면 나라의 보탬이 될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누구나 원하는 것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생활 속 소통의 공간으로 중추적 역할을 해나갈 작은도서관 버드나무에부는바람. 계속해서 아이들과 주민들을 만나며 다채로운 색을 가진 그림책 마을로 성장할 날이 손꼽아 기다려진다.





# 책 문화가 넘실거리는 숲속의 작은 집

숲속도서관

숲속도서관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자리한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목양교회가 지역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만든 도서관이다. 마을 주민들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아이들 교육과 문화체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함께 하며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운영	주소	유형
평일 10:00~18:00 주말 10:00~17:00 (월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67번 길 31(목양교회) 교육관 2층	사립 작은도서관 <a href="http://library.libp.net/soopsok">http://library.libp.net/soopsok</a>

## ■ 동천동에 스며든 초록빛 책 바람

재개발로 어느새 높은 아파트가 가득한 동천동. 아파트촌일 것만 같은 이곳에 존재만으로도 휴식을 주는 문화쉼터 숲속도서관이 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지만 사회와 소통하는 작은도서관을 표방했다. 교회와 도서관은 공통점이 많은 게 운영진의 생각이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종교기관과 작은도서관의 유사한 가치를 지닌다.

동천동의 특징은 도서관 문화가 활성화된 동네다. 근처에 느티나무도서관이 있고, 아파트 작은도서관도 많아 주민들에게 작은도서관은 낯선 공간이 아니었다. 이점이 오히려 찾는 주민이 없을까 고민이었지만 이것은 기우였다. 현재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50명에 달할 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도서관 문화에 익숙했던 주민들은 오히려 새로운 도서관이 생긴 것을 반가워했다. 읽을 책이 더 많아졌고, 즐길 프로그램도 많아졌다는 것이

다. 주민들의 사랑에 화답하기 위해 숲속도서관도 양질의 책과 다양한 활동으로 이용자를 맞이했다. 이렇듯 숲속도서관은 동천동 도서관 문화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 ■ 마을의 성장을 담다 '도서관 활동기 앨범 제작'

숲속도서관은 181㎡(55평)의 규모에 14,000여 권에 달하는 소장 자료를 갖춘 제법 큰 규모의 작은도서관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문화 쉼터를 제공하고자 공간 구석구석 세심하게 구성한 점이 돋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어린이들이 책도 보고, 신나는 구연동화도 즐기는 계단 광장이다. 도서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으로 e-book 코너도 함께 준비돼있다. 어린이들은 작은 음악회를 진행하기도 하고, 함께 게임도 한다. 이외에도 영화 상영을 위한 영상실과 오순도순 오두막 도서관, 상상도서관, 숲 도서관 등 아기자기한 이름의 열람실들이 이용자를 맞이한다.



숲속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는 책 놀이터, 어른들에게는 문화체험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천동은 한적하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동네로 은퇴한 어르신들이 많다. 근처에 학교도 위치해 있어 모든 연령층이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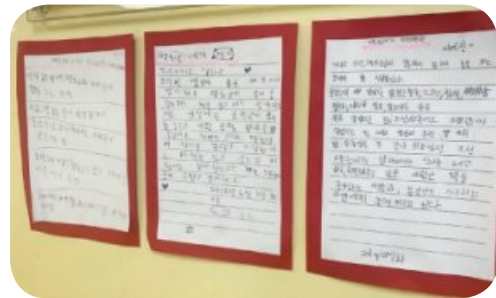
매주 수요일 어린이에게 구연동화를 들려주는 이야기 놀이터, 가족영화상영, 문화체험학습, 아나바다 장터, 연중 가장 크게 펼쳐지는 북콘서트와 원화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숲속은 여러 동아리도 운영한다. 인문학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인문학 독서동아리, 가방을 비롯한 켈트 작품을 만드는 켈트동아리, 한국사를 읽

고 토론하는 한국사 동아리, 소품을 만드는 뜨개질 동아리 등이 숲속을 대표하는 동아리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 중 가장 주목할만한 동아리는 한국사 동아리를 꼽을 수 있다. 회원들이 역사를 함께 공부하며 한국사 능력시험에도 응시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뿐만 아니라 용인중앙도서관에서 역사토론교실 강사로 활약하기도 했다.

운영진은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활동기를 담은 앨범을 제작한다. 이렇게 기록한 앨범은 숲속도서관의 보물이다. 단순히 책을 읽으러 왔던 사람들은 어느새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도서관의 역사를 함께한 것이다. 꽤 오랜 시간 제작해온 앨범은 마치 도서관의 성장



과 동천동의 마을 기록을 보여준다.

마을 네트워크가 유난히 활성화된 동천동은 여러 사업도 마을 이름으로 진행한다. 숲속도서관도 일조하고 있는데 2020 독서동아리 공간나눔 사업에 참여해 도서관의 유휴 공간을 나눴다. 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과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주민들의 문화 생활을 책임진다.

### ■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 거점으로

숲속도서관은 강성혜 관장을 필두로 운영한다. 운영위원회 5명과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함께하고 있지만 강 관장이 전반을 맡아 운영한다. 지칠 때도 있지만 도서관을 좋아하고,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행복이기에 힘든 줄도 모른다고 말한다. 강 관장은 교회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베테랑 사서다. 이번 숲속도서관이 세 번째다. 근무지에 따라 주거지를 옮길 정도로 교회 도서관 운영에 열성적이다. 이곳 동천동에서 어느새 6년째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일을 어느새 15년 동안 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즐거움이 훨씬 커요. 도서관은 오히려 저의 꿈을 이뤄준 곳이에요. 사서의 꿈은 물론, 삶의 방향까지 알려준 소중한 공간이죠. 작은도서관은 운영진의 역량에 따라 변화가 확실한 곳인데, 이 점이 저를 끊임 없이 성장시켰어요.”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도서관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사람’이다. 그럼에도 강 관장이 사서 자격증을 갖고 있어 순회사서 지원이 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작은도서관은 지역마다 모습이 다르고 특성도 달라 일관된 정부의 지원으로는 운영의 어려움이 존재해요. 그럼에도 작은도서관은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내고 있죠. 제가 찾은 역할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문화적 거점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바탕으로 동천동의 문화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함께할게요.”





# 미래 새싹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

생글 작은도서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 공간이 있다. 바로 쌍문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생글 작은도서관이 그 주인공. 도서관은 '지역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시작됐다. 2007년에 개관해 쌍문1동의 작은도서관으로 제법 역사가 깊은 생글 작은도서관은 오늘도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운영	주소	유형
평일 12:30~18:00 (주말, 법정 공휴일 휴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32길 35, (쌍문동) 2층	사립 작은도서관 <a href="http://cafe.daum.net/wooridb">http://cafe.daum.net/wooridb</a>

## ■ 아이들을 위한 '보이지 않는 손'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책임지는 생글 작은도서관은 2007년 개관해 올해 개관 13주년을 맞은 도봉구 작은도서관의 큰 형님이다. 쌍문 1동에서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모여 복지를 화두로 공부한 계기가 생글 작은도서관 역사의 시작이었다.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보이지 않는 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도서관 건립을 결정했다.

오랜 시간 주민들의 든든한 책 친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열성적인 운영위원들 덕택이다. 시민운동과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았던 운영위원들은 작은도서관 건립을 위해 뜻을 모았다. 함께 도서관 장소를 구하고, 내부에 페인트칠을 하고 책을 모았다. 그리고 후원회원을 모았다. 작은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마을공동체에 중요성을 펼쳐며 운영위원들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현재는 많이 줄어든 수치지만 약 110명의 후원회원들이 도서관을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다.



운영위원들은 한 달에 두 번 모여 사안을 논의하고, 도서관의 크고 작은 일들을 나눈다. 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도봉구 내 작은도서관 중에서 운영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도서관이라는 타이틀도 갖게 했다.

생글 작은도서관 면적은 약 79㎡ (24평), 열람석 30석으로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운영위원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알찬 서가가 돋보인다. 도서관 바로 앞에 위치한 쌍문초등학교의 권장도서도 구비하고 있는데 방학 시즌이 되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가장 인기 많은 도서관이 된다.

도서관의 장서는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답게 어린이, 청소년 도서가 80%로 주를 이루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 직업에 관련된 도서, 만화책 등을 고루 구비하고 있다. 성인도서는 최근에 집중하기 시작한 장서로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약 10,000권의 도서가 빼곡이 꽂힌 책장은 심진 분류법이 아닌 알록달록한 띠가 책을 두르고 있



다. 심진분류법이 낯선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림동화, 사회, 문화, 청소년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색띠로 둔 것이다. 이러한 특색있는 방식은 이용자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고, 오배가를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서가 내 분실 책이 줄어든다.

내부는 햇빛이 잘 들어와 아늑한 느낌을 준다. 오전 시간엔 학부모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소모임 장소로 쓰인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엄마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여유를 찾고, 교류하며 또 다른 네트워크를 만든다.

오후가 되면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책을 읽고, 친구들과 간식을 나눠먹는다.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가기 전 정거장처럼 쉬었다 가는 공간인 생글 작은도서관은 아이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 친화적 독서공간으로 쌍

문동의 독서문화를 견인하고 있다.

### ■ 책과 놀이로 만들어가는 생글 세상

생글 작은도서관의 일주일은 바빠 흘러간다. 아이와 학부모들이 모두 만족할만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이 매일 다양하게 펼쳐지기 때문이다. 도서관을 장식하는 요일별 프로그램은 이용자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성황리에 운영중이다.

먼저 월요일에는 그림책을 읽고 보드게임을 즐기는 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 '그림책과 보드게임'과 책을 읽고 관련된 놀이를 하는 '책으로 놀자'가 운영된다. 이외에도 격주로 목요일에 만나 동화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을 하는 '책탐험', 셋째주 목요일에 만나 천연재료를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 '천연화장품 만들기', '낭독모임' 등이 있다.



눈여겨볼 만한 프로그램은 또 있다. 매년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과학교실'이다. 서울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과학 강좌도 듣고 매년 과학 관련 견학을 간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더 넓은 세상을 만나 새로운 경험을 쌓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소감도 나눈다.

*국립과천 과학관을 갔다왔다. 처음 보는 친구들과 서로 친해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내가 기억에 남는 체험은 역올하게 죽은 아씨, 돌쇠, 노인이 어떻게 죽었는지 밝히고 DNA를 이용한 수사체험이 기억에 남으면서도 재미있었다. 이 체험 덕분에 경찰이라는 꿈이 커진 것 같다. 다음에도 이런 체험이 있다면 또 신청하고 싶다.*

- 국립과천과학관 견학기 송보미 학생

생글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재능기부로 이뤄진다. 엄마와 언니를 따라 어릴 때부터

도서관에 온 아이들이 중, 고등학생이 되어 책 읽어주기 등의 재능기부를 하는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선생님이 되어 도서관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도서관과 1박2일 캠프, 부모강좌, 찰흙놀이, 벼룩시장, 그림책작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주민들 삶에 녹아들며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 함께 크는 작은도서관

2007년 개관해 13년간 오랜 시간 주민들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자발적으로 열성 넘치게 도서관 운영을 도맡아주는 운영위원, 오랜 시간 꾸준히 후원해주는 후원회원들, 여러 방법으로 재능기부를 해주는 자원봉사자들, 매일 같이 들려 열심히 책을 읽고 또 빌려가는 아이들과 주민들까지 이 모두가 생글 작은도서관의 지금을 있게 한 힘이자 원동력이다.





자체 후원금과 구와 시의 지원금으로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민은 존재한다. 바로 새로운 후원회원의 부재이다. 후원회원은 결국 운영위원이거나 또는 운영위원의 지인이 대부분이다. 10년 넘게 운영해오면서 150명 정도로 시작한 후원회원이 줄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봉구의 역사 깊은 작은도서관으로서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작은도서관 모델을 만드는데 어려움도 뒤따름을 실감한다. 이외에도 생글 작은도서관은 쌍문초등학교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데 이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때가 있다.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나 돌봄 학

교를 진행하다보니 도서관 이용률이 조금 줄어든 것이다. 이에 생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역할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 작은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고, 그 대안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

오랜 시간 지역주민들의 곁에서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온 생글 작은도서관. 앞으로도 이용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을 찾고, 알맞은 도움을 주며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시장 속 문화아지트, 삶을 토닥여준다

토닥토닥그림책 작은도서관

경기도 여주에는 꼭 한번 가볼 명소로 꼽히는 여주한글시장 안에 독특하게 자리한 또 하나의 명소 토닥토닥그림책 작은도서관이 있다. 2018년 개관해 상인들의 쉼터이자 아이들의 자람터로 책과 사람을 이으며 삶을 토닥여주는 시장 속 문화아지트로 빛나고 있다.



### 운영

평일 10:00~19:00  
주말 10:00~19:00  
(월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 주소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4번길 9,  
(창동) 3층

###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https://www.facebook.com/library.todaktodak>

## ■ 누구나 '잠시 쉬어가세요'

경기도 여주시는 남한강을 따라 자리 잡은 경치가 좋은 시 중 하나이다. 여주한글시장은 경기도에서 성남시 모란시장 다음으로 규모가 큰 시장으로 5일장이 매월 5일 10일에 열린다. 좋은 품질의 상품이 가득한 시장에서 장도 보고, 멋진 강변을 바라보며 맛있는 음식도 맛볼 수 있어 꼭 한번 가볼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복잡하고 분주한 시장에서도 유난히 시간이 천천히 가는듯한 색다른 공간이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 곳이 있다. 시장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한 토닥토닥 작은도서관은 바삐 흘러가는 시장 안에서 발견하곤 멈춰섰다가도 금세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어젖히게 한다. 30평 정도의 면적에 약 5,000권의 장서와 도서관 내 아기자

기한 전시들은 이용자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여주사람들은 시장에서 어린이·청소년들과 런닝맨을 하고, 장날에는 북콘서트를 하며 인문학을 얘기했다. 그렇게 독서문화를 전파해가던 중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다. 바로 상인회에서 도서관을 운영할 공간을 내어준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도서관은 2018년 문을 열었다.

어른들은 장을 보고 도서관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기 전 버스를 기다리다 잠시 와서 그림책을 읽고 간다. 상인들은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잠깐 들러 고단함을 풀고 간다. 그렇게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연령대가 책으로 배움을 얻고, 위로 받는 열린 공간을 꿈꾼다.



## ■ 살아 숨 쉬는 다목적 문화공간

도서관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매일 평균 40여 명이 방문하고 책 100여 권이 활발하게 대출되고 있다. 오전에는 어른들이 이용하고, 오후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된다.

오후 7시면 문을 닫을 시간이지만 기획 회의가 있는 날은 밤 10시를 훌쩍 넘을 때도 있다. 운영진들은 더 나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매일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 도서관 이름과 함께 하는 '그림책'은 언제나 고심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다. 어느 도서관보다도 빠르게 신간 그림책은 매주 수서하여 비치하고 있다. 새로운 책이 매주 들어



오기 때문에 그림책을 읽으러 오는 단골 이용자들도 아주 많다.

장서는 주로 그림책을 구입하지만 평화, 인권, 난민, 기후변화 등 세계시민을 주제로 하는 책들도 수서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소외 계층 없이 모두가 이용해야 한다는 운영 철학이 묻어난다. 최근에는 북한 관련 도서에 관심을 두고 '남북어린이가 함께 보는 옛이야기', '남북이 함께 보는 겨레문학' 등을 비치하고 있다. 이처럼 각 사회 이슈에 따라서 관련 도서를 빠르게 수서해 이용자들의 니즈를 채우고 있다.

토닥토닥그림책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과 호흡하기 위한 다양한 소모임 활동 및 지역 연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직장인들을 위한 다양한 동아리들부터 시장 내에서 독서문화를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까지 매년 여러 프로그램들이 개발, 운영한다.

매월 1회 책 읽는 캠페인 《책 읽는 경강선》을 운영하는 중등인문 동아리 '싸댕', 《시장에서 노는





런닝맨, 책으로 노는 방탈출》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고등 책놀이 동아리 'RED', 아마추어 천문인을 꿈꾸며 《시민 천문대》를 운영하는 '스타홀릭', 매월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평화콘서트》를 진행하는 '평화행동', 《그림책 버스킹》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책과함께' 등 고등 연합동아리 '나뎌' 회원 30여 명이 활동하며 도서관의 마스코트로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 활동가들은 도서관을 이루는 든든한 축이다. 9월에 열리는 '여주시민 책 잔치'를 기획부터 모두 준비해서 운영한다. 중학교 후배들부터 고등학교 선배들까지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시간을 갖는다. 활동가들은 자신들만의 기획력으로 매년 업그레이드된 책잔치 풍경을 만들어 내곤 한다.

작년부터 청소년으로 활동하던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 5명의 청년활동가가 탄생했다. 청년활동가들은 모든 도서관 활동의 멘토 역할을 자처하며 청소년 동아리 회원들과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 청년활동가들 덕분에 새로운 프로그램 '민주 시민학교'가 기획되었다. 난민, 인권, 기후변화 대응 활동,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해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매일 시장 안은 시골벽적하지만 작은도서관 행

사 날이면 더욱 더 활기를 띤다. 지역사회 이슈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 얼마 전 여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을 위하여 장터 콘서트 '꽃할머니'를 기획해 진행했다. 이외에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독립선언서'를 배부해 시장 내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이 모든 활동의 바탕은 책이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활동을 기획해 진행하고 있다.

토닥토닥 작은도서관의 대표적인 활동은 또 있다. 바로 '책나루터 정거장'으로 버스 정거장에 작은도서관을 만든 것이다. 작은 서가에 20~40권 책을 채워놓고 버스를 기다릴 때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책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재미있어서 책 읽는 흐름을 끊기 싫을 땐 그대로 들고 댔다가 내리는 정거장에서 반납할 수 있어 이용률이 꽤 높다. 현재 11개 정거장에 책나루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더 늘려갈 예정이다.

### ■ 경쟁 아닌 평등을 추구하는 운영 철학



토닥토닥 작은도서관이 지금처럼 여주시장 내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운영진들의 노력과 이용자들의 애정이 숨어있었다. 운영을 맡고 있는 여주사람들 권광선 대표는 5년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다 공간 문제로 폐관을 하게 됐다. 안타까워하던 차에 한글시장에서 다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어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한다.

현재 도서관운영위원회 6명, 사서 2명, 시민활동가 5명, 청년활동가 5명, 청소년활동가 10명이 각 역할을 나눠 운영하고 있다. 스스로 시민 사서라고 칭하는 김동현 사서는 시립도서관 사서로 퇴직하고 작은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을 만나며 제2의 사서 인생을 살고 있다. 이주현 사서도 학교도서관 사서로 퇴직해 다시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함께 작은도서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독서운동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운영진들과 '책으로 만드는 좋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물론 부족한 운영비에 대한 고민도 존재한다. 도서관 임대료, 운영비, 인건비 등을 계속해서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현재 운영위원들이 외부 강사활동을 통해 십시일반 모아서 해결하고 있다.

이들만의 운영 철학은 '경쟁하지 않기, 가르치려고 잔소리하지 않기, 평등하게 대해주기'이다. 시장 내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자 문화가 만들어지는 토닥토닥 작은도서관. 앞으로도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자 여주시장의 명소로 오랜 시간 빛나주길 바라본다.



# 동네 뒤편,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곳

## 뒷동네도서관

푸르른 청계산과 아름다운 경관의 백운호수를 품은 경기도 의왕시에는 소박하지만 온기가 느껴지는 문화공간이 있다. 걸어서 10분 거리의 도서관을 꿈꾸며 마을과 함께하는 뒷동네도서관은 비영리민간단체 더불어가는길이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이다. 도서관 접근성이 낮은 주택가에서 마을의 주민들과 새로운 책 문화를 만들어가는 뒷동네도서관을 만났다.



운영	주소	유형
평일 13:00~17:00 (주말, 법정 공휴일 휴관)	경기도 의왕시 오리나무로 28. (내 손동) 103호	사립 작은도서관 <a href="https://www.thegil.org">https://www.thegil.org</a>

### 도서관 지킴이 ‘구름빵, 토끼풀, 마늘쫑, 달 보드레, 마음이, 왜요, 프리다’

뒷동네도서관은 중고등통합대안학교 더불어가는배움터길에서 시작했다. 2011년 학교도서관 나무와숲도서관을 거쳐 지역사회 교류와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지금의 뒷동네도서관으로 2014년 개관했다.

도서관 운영진은 처음에는 모두 대안학교의 학부모들이었다. 우리 아이가 획일적인 입시교육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꿈을 키우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인 엄마들은 독서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다. 학교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던 엄마들은 학교를 넘어 더 큰 지역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다. 이 염원을 바탕으로 내손동 뒤편에 새로운 동지를 틀었고 지금은 뜻을 같이 하는 주민들도 참여하고 있다.

엄마들이 주축이 되어 친근감 있는 공간, 동네 뒤편에서 마을을 지켜주는 사랑방 같은 공간을

추구하며 도서관 문을 열었다. 이곳에 들어서면 고소한 빵내음이 풍긴다. 공간을 나눠 쓰는 ‘엘리스브레드’는 주민들이 책을 읽고, 레시피를 따라 빵을 만드는 마을 공간이다. 바로 그 옆에 책장이 가득한 도서관을 만날 수 있다.

“구름빵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토끼풀님! 재밌는 책 추천해주세요!”

귀여운 애칭으로 불리는 운영진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하다. 학교에서 함께했던 엄마들은 딱딱한 직함이 아닌 별명으로 불린다.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 또한 똑같은 별명으로 운영진을 부른다. 덕분에 아이들은 도서관을 더 편안하고 친근한 공간으로 여긴다.

도서관의 자량은 열정 넘치는 운영진들이다. 운영의 전반을 맡고 있는 ‘토끼풀’님은 의왕시 작은도서관 부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활동가다. 작은도서관들이 더 활발히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왕시의 뜻있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





확한 한글 축제는 의왕시의 대표 마을 축제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운영진들은 이외에도 많은 활동을 한다. 도서관 운영은 물론, 시의 공공도서관과 여러 사업도 진행한다. 최근에는 내손도서관에서 도서를 지원 받아 양질의 책장을 꾸렸다.

도서관의 가장 큰 테마는 ‘온기’다. 도서관 곳곳에는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 물기를 머금은 화분들과 책상 가운데 소소한 간식, 손으로 쓰여진 아기자기한 안내 문구들까지 도서관을 가득 채운다. 그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이용자들을 환하게 맞이하는 운영진들의 따뜻함이다. 이들은 언제나 도서관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

### 책으로 시작한 우리 문화 ‘지역 대표 축제가 되다’

뫼동네도서관은 주민들과 알찬 일상을 나눈다. 매년 봄에는 근처 갈미공원에서 책 나눔을 하는 뫼동네놀이터시장에 참여한다. ‘길’이라는 공동

체 화폐로 책을 사고 팔고, 아나바다 장터도 함께 한다. 자신이 읽고 좋았던 책을 팔기도 하고, 한번 읽고 잘 안 읽게 되는 책들도 나누며 새로운 책들을 만난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이 오면 도서관은 의왕시 한글 축제 준비를 시작한다. 근처 작은도서관들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체험부스 준비로 분주해진다. 매년 한글날 펼쳐지는 축제는 풍물놀이, 한글 그리기, 한글겨루기 대회,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의왕시 유명 축제로 자리잡았다.

뫼동네도서관의 또 다른 자랑은 동아리 0730, 독한사람들, 우쿨렐레 동아리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0730’은 7년을 함께한 동아리로 3주에 한 번 저녁 7시 30분에 모여 책을 읽는다.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는 것을 목표로 책을 추천하고, 토론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회원들은 오랜 시간 함께 책을 읽으며 서로의 많은 것을 나눴다. 어느새 크고 작은 사적인 얘기도 공유하며 삶의 위로를 얻는다.



‘독한사람들’은 한자로 읽을 독(讀)자와 ‘독한 마음 먹고 책을 읽어보자’는 뜻이 합해진 이름으로 어렵고 두꺼운 책을 함께 읽고 있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많아지면서 긴 호흡으로 읽어야 하는 어려운 책들을 멀리하는 요즘, 두꺼운 책에서만 느낄 수 있는 목직한 울림을 느끼며 뜻깊은 독서를 하고 있다.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하는 ‘독서퀴즈교실’도 빼놓을 수 없다. 청소년들을 독서활동에 이끄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고심하던 운영진들은 청년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보다 자신들과 세대적, 정신적으로 가까운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함께하니 청소년들의 관심이 늘었다. 함께 퀴즈도 풀고 즐거운 독서 시간을 보내며 청소년들은 한층 책과 가까워진다.

이외에도 여러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서관을 풍성하게 했다. 2019년에는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의 작은도서관 책친구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이용자들을 만났다.



이러한 운영진들의 노력 덕분에 내손동 일대는 새로운 독서문화가 피어나는 중이다. 아이들은 책과 가까워지고, 어른들은 독서동아리를 통해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며 도서관과 일상을 함께 한다.

### 삶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공간이 되길

주민들과 함께 독서문화를 만들며 7년째 열심히 달려온 뫼동네도서관. 편안함과 친근함을 무기로 의왕시 작은도서관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도서관을 이끄는 운영진은 모두 8명으로 무보수 자원봉사자다. 모두 하는 일이 따로 있지만 책과 도서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다. 운영진들은 도서관의 역할이 대출·반납의 공간이 아닌 문화공간이 되려면 지원이 꼭 확대돼야 한다고 말한다. 뫼동네도서관이 주민들과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예산 문제가 해결되어 운영비 걱정 없이 나래를 펼칠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책 읽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여전히 독서는 중요해요. 책을 매개로 하는 활동들은 우리 삶에서 더욱 유의미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는 요즘이죠. 지식을 전달하는 배움의 역할보다는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삶의 의미를 찾는 공간으로 오랜 시간 함께 하고 싶어요.”



## 마을 안에서 찾는 작지만 소중한 행복 돌멩이국 작은도서관

돌멩이국 작은도서관은 인천시 계양구 작전시장 안에 자리한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힐링 아지트다. 시장 상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주민들에게는 쉼을 주며 문화생활을 책임지는 독서공간으로 지역 독서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 운영

평일 10:00 ~ 18:00  
토 10:00 ~ 13:00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시장로  
23, (작전동) 지하1층

###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http://cafe.naver.com/dmig>



## ■ 주민들과 따뜻한 돌맹이국을 ‘끓인다’

작전시장은 소박함과 친근함이 물씬 느껴지는 인천시 계양구의 대표 전통시장이다. 맛있는 먹거리와 상인들의 정겨운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시장 어귀에 이르면 오늘의 주인공인 돌맹이국 작은도서관이 보인다.

지하 1층의 도서관은 마치 야학이 이뤄지는 비밀 공간 같은 느낌을 주지만,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민들의 손길이 느껴지는 따뜻한 공간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온기가 느껴지는 원목서가와 아이들이 함께 만든 귀여운 달력까지 도서관 곳곳에서 이용자들의 사랑을 엿볼 수 있다.

바쁘게 흘러가는 시장 안에서 돌맹이국은 조용히 자리를 지킨다. 상인들은 잠시 들러 고단함을 풀고, 시장을 이용하는 어른들은 도서관에서 잠시 쉬어간다. 시장과 도서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조합은 나름의 긍정적인 효과를 내며 함께 살아간다.



도서관이 주민들과 함께 한지 어느덧 7년째다.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인상 깊은 명칭 ‘돌맹이국’. 과연 어떻게 짓게 된 것일까. 운영의 전반을 맡고 있는 엄민희 사서는 그림책 「돌맹이국」에서 도서관 운영의 방향을 찾았다고 한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스님 세 명이 삭막함이 느껴지는 어느 마을에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은 외부인인 스님들을 경계하며 문을 굳게 잠근다. 그때 스님 한 명이 돌맹이국을 끓이기 시작하면서 한 아이가 궁금증을 갖고 다가온다. 스님은 돌맹이로 국을 끓이려 하는데 양파가 부족하다며 아이에게 부탁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스님들에게 필요한 재료를 내놓기 시작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손길로 많은 재료가 모여 돌맹이국은 순식간에 풍성해진다. 사람들은 한 자리에 둘러앉아 돌맹이국을 함께 먹으며 나눔을 다시 알고 실천하게 된다는 따뜻한 이야기이다.

엄 사서는 “사소한 돌맹이국 하나로 마을의 활기를 찾은 것처럼 우리 도서관도 사람들이 모여 가



진 것을 나누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돌맹이국이라 정했다”고 말했다.

2014년 인천시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사업으로 돌맹이국 작은도서관을 만난 엄 사서는 도서관의 시작을 함께하며 어느새 4년 동안 이용자를 맞이한다. 현재는 순회사서가 아닌 도서관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서관 설립 초반, 운영진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원목 서가를 직접 제작하고 자료실 페인트를 칠하며 도서관을 만들었다. 쉽지 않은 운영이었지만 ‘마을의 돌맹이국 같은 존재가 되자’는 바람 하나로 도서관을 꾸려나갔다. 2018년에는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쾌거를 보여줬다.

## ■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어린이책 활동가’

도서관이 위치한 인천시 계양구는 작은도서관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었다. 작은도서관이 아닌 주민센터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북카페 형태의 문화시설은 있었으나 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공간을 찾기에 힘들었다. 이에 작전동에 등지를 둔 운영진들은 책과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공간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근처에 학교가 많아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므로 그림책 위주로 장서를 채우고 있다. 아이들이 어떤 책을 택해도 모두 좋은 책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운영진들은 항상 먼저 읽어보고 서가에 꽂는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직접 기획해 운영한다. 성인 대상인 ‘어린이책 활동가 과정’은 아이들이 더 쉽고 재밌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나라의 그림책과 역사를 공부하며 전문적인 지



식을 배운다. 과정을 마친 활동가들은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도맡아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넘어 근처 문화센터나 학교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도서관에서 양성된 어린이책 활동가들이 다양한 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어주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지금은 자신의 능력을 펼치며 전문적인 활동가로 거듭난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학교에서 활동하는 분들 덕분에 도서관이 학생들에게 홍보가 되어 이용자들도 늘었습니다.”

마을키움터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책을 함께 읽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은 섭외는 물론 질문지도 직접 제작해 인터뷰를 진행한다. 아이들은 시장 상인들의 가게 운영기와 마을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 등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

마을의 소식을 전하는 방송인 돌맹이국 마을



을 광장(<http://www.podbbang.com/ch/1773401>)도 눈여겨볼만하다. 마을의 소중한 이야기는 물론 운영진들이 재미있는 책을 읽어 주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휴관 중일 때 이용자들을 만나는 소통 창구로 유용했다.

이외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들을 만난다. 성인 대상으로 어린이책을 함께 읽는 루저 클럽, 책을 읽고 주제를 정해 이야기를 나누는 리더스 클럽, 그림책을 읽고 토론하는 책보를 운영한다.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책을 읽고 관련된 활동을 하는 오물오물 작은북, 책을 읽고 토론하는 생각발전소 등의 활동들이 도서관의 일주일을 가득 채운다.

### ■ 소외되는 이 없는 열린 공간으로

책을 중심으로 사람이 만나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로 열심히 달려온 돌맹이국 작은도서관. 오늘도 돌맹이국은 주민들에게 독서문화를 전파하며 작전동 일대를 책 읽는 마을로 만드는 중이다.



돌맹이국은 앞으로 책의 역할에 더 집중해 이용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작은도서관의 마을공동체나 쉼터 등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이라는 정체성을 잊어서 안된다는 것이 운영진들의 생각이다.

“작은도서관은 늘 고민이 끊이지 않는 공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어야 할까, 무슨 책이 꽂혀 있어야 하는가 등 고민과 선택의 연속

입니다. 현재는 도서관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소외된 아이들을 어떻게 돌맹이국으로 데려올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운영진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돌맹이국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꿈꾸며 돌맹이국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며 좋은 해결책을 찾아내겠습니다.”





# 인문학으로 배우는 더불어 사는 삶

청소년인문학도서관 Doing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인 인문학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매일 학업에 치이며 바쁘게 살아가는 청소년에게는 더욱 중요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는 인문학을 함께 공부하며 삶을 배우는 청소년들이 있고 그 이야기를 들어봤다.



### 운영

평일 13:00 ~ 21:00  
토 10:00 ~ 18:00  
(월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35. (십정동) 사임당빌딩 5층

###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http://doing.or.kr>

## ■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작은도서관

청소년인문학도서관 doing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한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이 입시경쟁에 무기력해진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꿈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든 도서관이다. 청소년들은 인문학을 바탕으로 독서동아리, 문화체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함께 하며 주체적인 어른으로 성장한다.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은 청소년들이 10대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왔다. '청소년들을 어디서 더 많이 만날 수 있을까',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으로 도서관 설립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인문학이 청소년을 주체적인 삶으로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청소년과 인문학을 도서관의 운영 방향으로 정했다.

도서관명인 'doing'은 행동하고 실천하자는 의미로 청소년들의 특독 튀는 아이디어로 탄생했다.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진 지역주민, 교사 등 운영자금과 도서를 기부하면서 마침내 2009년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이 개관했다.

두잉은 122㎡(37평) 면적에 현재 총 장서는 4,100여 권으로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알차게 구성돼 있다. 인문학 서적 중심의 서가, 영화 상영이나 토론이 가능한 열람실,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북카페 등 세심한 구성으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생기 넘치는 초록색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한 책을 전시한 '달달책장'이 눈에 띈다. 청소년이 주축인 도서관이기에 직접 운영에도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책 전시를 맡겼다. 그 결과, 지금은 청소년도서선정위



원회까지 만들어져 다양한 주제로 도서관을 장식하고 있다.

두잉은 주 이용자인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나 학원 숙제로 방문하는 아이들을 위해 태블릿 PC는 물론 책 읽기가 어색한 아이들도 도서관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드게임도 마련했다.

함께 읽고 토론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와 살아갈 방향을 깨닫게 하는 두잉. 대한민국 최초의 청소년인문학도서관이라는 사명감을 안고 오늘도 청소년들과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 ■ 아이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인문학

두잉은 인문학 독서와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과 독서동아리를 운영한다.

청소년 인문학 독서토론모임은 또래 학생들이 모

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잉의 가장 대표적인 독서동아리다. 14~16세까지 3개, 17~19세 1개로 총 4개의 독서동아리를 운영한다.

도서관 운영의 전반을 맡고 있는 안수진 사무국장은 청소년도 연령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사회에서는 14~19세까지 모두 청소년이라 부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나이대별로 하는 생각들이 모두 다릅니다. 같은 나이의 아이들은 서로 관심 분야와 공감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동아리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한다. 직접 모임을 하고, 회원들과 1년 계획을 세운다. 청소년들 사이의 논쟁거리부터 현재 사회적 이슈인 노동, 역사, 미투(MeToo) 운동, 인권 등 다채로운 주제로 토론을 하며 자신들의 생각을 나눈다. 토론 외에도 한 학기 한 권 읽기, 슬로우리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는다.

14세 때 독서동아리를 시작한 아이들은 19세가



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안 사무국장은 함께 책을 읽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운영진들은 깊은 보람을 느낀다. “청소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두잉의 청소년들은 사회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의논한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다. 매년 4월에는 세월호 사건 기억식을 진행한다. 단순히 안타까운 사건으로 추모하는 것이 아닌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무엇인가 등을 논의하며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또 다른 청소년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인다. 1999년 인천시 중구 인현동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매년 온라인

인 추모제도 진행한다. 당시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대부분 청소년이었는데 이들이 학업을 벗어나 일탈을 즐기다 사건에 휘말렸다는 비난에만 여론이 초점을 맞췄다. 두잉의 청소년들은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청소년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홈페이지를 제작해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청소년 인문학 강좌, 인문학 토크대회, 청소년 인권교육, 작가와의 만남, 독서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내면이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 ■ 청소년들의 주체적 삶의 공론장으로

두잉은 청소년들이 정해진 답이 아닌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는 삶을 살아가며 자유롭게 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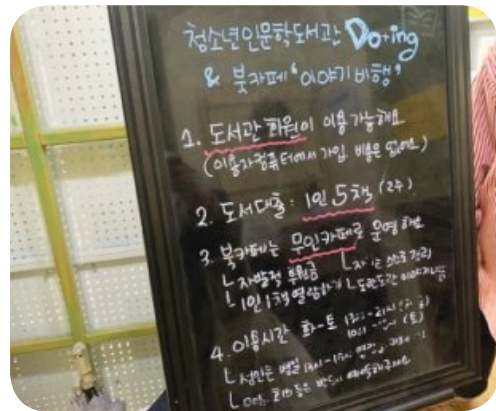


키웠으면 한다. 그 바람으로 어느새 11년째 심정을 지키며 아이들의 꿈을 든든히 지원한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어떠한 사회 문제가 발생해도 청소년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좋은 어른이 되는 것처럼요. 두잉은 청소년들이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우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공간이 되고 싶어요. 형식적이고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

는 그날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이자 특화 도서관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계속해서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지역에서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이를 통해 청소년 교육공동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이 두잉에서 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



# 행동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다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

여성주의는 여성 권익 신장 운동으로 최근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 페미니즘으로 더 많이 불린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에는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여성들의 도서관이 있다. 국내 최초 여성주의 도서관 타이틀을 지닌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운영**

화·수·목 10:00 ~ 21:00  
 금·토 14:00 ~ 21:00  
 (월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동로 60,  
 (삼산동) 3층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http://blog.naver.com/sssbp>

## ■ 엄마 역할 벗은 ‘여성’을 배려한 공간

랄라는 지역의 여성단체인 인천여성회에서 시작했다. 2003년 신나는어린이도서관을 거쳐 여성들과 새로운 성평등 세상을 이야기하고자 지금의 모습으로 2017년 재개관했다. 어린이도서관 시절 마을의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성장하는 마을공동체를 지향했다면,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는 아이의 엄마가 아닌 여성들의 주체적 삶을 응원하며 건강한 담론을 나누는 공간을 추구한다.

도서관 이름에 ‘여성주의’를 내건 것은 여성 전용 공간을 표방한 게 아니라, 여성들을 배려하기 위한 도서관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랄라는 모두에게 열려있으며 페미니즘과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마음 놓고 떠들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다.

여성주의 도서관을 전면에 내세운 건 운영진들의 모험이었다. 사회에 퍼져있는 페미니즘 인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쩌면 거부감이 들거란 생각도 했다. 한편으론 정확한 정체성을 갖고, 페

미니즘의 본질과 개선책을 논의하는 장 또한 필요하다라는 결론으로 운영진들은 여성주의 도서관으로 운영 방향을 잡았다.

랄라는 누구에게나 늘 열려있는 도서관을 지향한다.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어둔다. 평일에는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저녁 9시까지 운영해 직장인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투박한 건물 외관을 뒤로하고, 도서관으로 들어서면 은은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마치 카페를 연



상케 한다. 운영의 전반을 맡고 있는 황보화 관장은 “예쁜 카페에 가면 일상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들면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꾸몄어요.”라며 환한 미소를 보였다.

가장 먼저 보이는 커다란 서가에는 ‘여성’이 주제인 다양한 책들이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국내 절판된 페미니즘 도서를 기증받기도 하는 등 근처 공공도서관보다 페미니즘 관련 서적이 많아 상호대차로 빌려가는 책이 상당하다.

랄라는 이용자들에게 여유롭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구석구석 세심하게 구성했다. ‘잠깐넙뉘방’은 편안하게 기대어 독서를 하거나 명상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롤루랄라모여방’은 특강이나 모임을 할 수 있는 널찍한 책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서가 사이 편히 누워 책을 볼 수 있는 숨은 공간들이 이용자들을 맞이한다.

도서관 한 칸에는 생리대, 생리용품 파우치 등 여성용품이 놓여있다. 이외에도 월경에 관한 상

식을 알려주는 월경 가이드북, 사회적 이슈를 담은 페미니즘 관련 소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물품들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가게 했다.

“도서관 벽에 랄라를 대표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내 안의 가능성을 모두 탐색하고 싶어’라는 말인데요. 랄라가 여성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가능성과 힘을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찾아가며 성평등 세상을 위해 나아가는 랄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주의 도서관이라는 사명감을 안고 오늘도 페미니즘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 ■ 남자답게, 여자답게가 아닌 ‘나답게’

랄라는 인천여성회에서 운영한다. 인천여성회는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이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며,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고민하는 단체다. 운영진





들은 끈끈한 자매애로 뭉쳐 람라의 운영은 물론, 지역 여성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인천문화재단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페미니즘 강의《세상을 바꾸는 여자들》이다. 여성학 권위자 또는 페미니즘 도서 작가들과 여성주의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공부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는다.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들의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강의를 듣는 남성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을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치유하는 글쓰기도 활발하다.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며, 삶의 위안을 얻는 시간을 갖는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나'의 이야기 쓰기를 배우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이외에도 내 안의 나를 만나는 '여성주의 타로상담', 그림책으로 고정관념을 깨는 '세대공감 그림책 수다', 아이들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는 '그림책으로 만나는 성평등', 여성주의 시선의 영화를 함께 보는 '여성 영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참가자들이 소모임을 만들어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성평등 프로그램도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 역할을 심어주기 위해 그림책을 읽어주고, 눈높이에 맞춘 활동도 한다. 서가 한 칸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성 평등 그림책들도 따로 마련해뒀다.

도서관 곳곳에는 기획전시 공간이 있다. 여성 작가들의 작품과 이용자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전



시한다. 올해는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여성의 몸을 주제로 사진 전시를 준비 중이다.

람라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일을 찾는다. 인권영화제에서 도서관 이름으로 참가해 목소리를 내고, 청소년들과 함께 스킴미투 운동과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인천의 젊은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활동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 ■ 여성, 남성 모두 존중받는 공간을 꿈꾸다

도서관은 여성들만의 공간이 아니다. 이 때문에 남성들이 이용을 어려워할 수 있지만 람라의 가치는 '모두 나다운 모습으로 존중받는 것'이다. 운영진들은 성별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기대에 호응하듯 최근 남성들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부부와 연인들을 위한 성평등 가이드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성평등 관련 논쟁이 뜨거워진 요즘, 운영진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서관 운영에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존재했다. 여권신장 측면만 부각되면서 부정적인 시선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운영진들은 이 점을 안타까워하며 성 평등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성평등 가치는 모두를 위한 것이잖아요. 실제로 남성들도 남자로서 강요되는 성 역할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저녁 시간에 찾아온 한 남성분이 혼자 페미니즘 책을 열심히 읽더니 며칠 뒤에는 여자친구와 함께 오셨어요. 이후에는 엄마랑도 같이 오셔서 이런저런 페미니즘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고 기뻐요. 람라는 성별을 막론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공간을 꿈꿔요.”



# 홍성에서 피어난 문화 ‘모두를 위한 작은도서관’

다올책사랑방 작은도서관

많은 예술인을 배출한 고장 충청남도 홍성에는 아름다운 녹색 풍경과 책을 읽을 수 있는 다올책사랑방 작은도서관이 있다. 마을의 평생교육 공간을 지향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독서 문화를 만들어 간다.



운영	주소	유형
평일 09:30~20:00 토 09:30~17:00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48 번길 16-1, 자경빌딩 2층 203호	사립 작은도서관

## ■ 친구네 집처럼 편안한 작은도서관

신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고즈넉한 분위기가 풍기는 동네를 거닐다 보면 높은 아파트들 사이 다올책사랑방 작은도서관이 보인다. 커다란 창이 눈길을 사로잡는 다올은 작은도서관의 매력에 빠져 15년간 도서관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김은정 관장의 염원이 담긴 곳이다.

오랜 시간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활동한 김 관장은 2018년 홍성으로 아예 이전했다. 그 당시만 해도 홍성 주민들에게 작은도서관이 익숙지 않은 곳이었다. 지자체의 작은 지원은 물론, 주민들은 작은도서관의 존재조차 몰랐다. 때문에 김 관장은 차근차근 작은도서관의 기반을 만들기 시작했다. 홍성 공립 1호 작은도서관 운영을 맡으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렸고, 이후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개관해 주민들이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5월,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올책사랑방 작은도서관이 개관했다. 도서관 이름에 다올은 ‘모두 다 오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도서관에 들어서면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탁 트인 느낌을 주고 창 너머 보이는 푸른 녹색 경치까지 더해 독서의 맛을 한층 더 살려준다. 다올에서는 책과 함께 사계절을 물씬 느낄 수 있다. 봄과 여름에는 생기 넘치는 초록 나무를 만나고 가을에는 익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겨울에는 하얀 눈이 앉은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다올을 둘러보면 흔히 보이는 종합자료실, 어린이실 등의 팻말을 찾아볼 수 없다. 모든 연령층이 한 공간에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눈다. 김 관장은 “그림책이 어른의 인생책이 될 수 있고, 글쫄책이 어린이들의 식견을 넓힐 수도 있어 한 연령층만을 위한 책은 없다”고 말했다. 덕분에 주민들은 어려운 주제의 책은 비슷한 내용의 그림책을 읽어보는 등 편안한 독서를 하며 책과 친해진다.





작은도서관이 제법 친근해진 주민들은 서스럼없이 다울을 찾는다. 친구네 집처럼 편안하게 잠시 둘러 간식을 나눠 먹고,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전입 가구가 많아 동네가 낯설었던 주민들은 도서관에서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 살아간다.

이처럼 주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운영으로 만족도를 높인 다울책사랑방 작은도서관.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주민들의 큰 관심 속에 가파른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 ■ 다양한 독서를 위한 ‘다울만의 북큐레이션’

개관 2년 차를 맞는 다울책사랑방 작은도서관은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 공간으로 지역에서 입지를 다지는 중이다. 총 장서는 약 7,000여 권으로 이 중 양서의 비율이 적지 않다. 그 비결은 다울만의 북큐레이션 덕분이다.

다울은 세계 그림책 수상작 원서와 번역본을 전시하는 북큐레이션을 운영한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의 그림책 작가 모음전 등 그림책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를 진행한다. 덕분에 원서가 많은 도서관으로 소문나 여러 지역에서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도서관 한 편에는 ‘충남 지역 작가 책’으로 책장이 가득 채워져 있다. 김 관장은 “충남의 숨은 작가들을 알리고, 지역에 대한 애郷심을 심어주기 위해 북큐레이션을 계획했다”며 어르신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책들을 소개했다.

다울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을 만난다. 현재 운영하는 ‘꼬마작가탄생! 시즌 2’는 참가자들이 홍성군의 홍보대사가 돼 설화, 인물, 유적지 등을 주제로 그림책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약 한 달 동안 책을 읽고 전래놀이, 전래동요 등을 체험하며 그림책을 만들어 전시와 북콘서트로 막을 내리는 다울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홍성군 문화특화사업단과 ‘홍성인물

세상 밖으로 태어나다’를 운영한다. 지역의 대표 시인 한용운의 시 88편을 각 지역의 사투리 버전으로 낭송하기, 이응노 화가가 되어 나만의 독창적인 캘리그라피 쓰기 등 홍성군의 위인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과 함께 호흡한다.

최근에는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들도 생겼다. 문화,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으로 도서관을 한층 더 빛내준다. 뛰어난 재능으로 다울을 넘어 다른 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주민들도 많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강조되는 요즘, 유튜브 방송으로 이용자들을 만나고 있다. 도서관 휴관이 계속되면서 운영 방법을 고심하던 중 시작한 유튜브 방송은 어느새 구독자가 4천명에 달한다. 매일 방송으로 책을 읽어주다보니 800편 이상의 동영상상이 채널에 업로드되었다. 유튜브 채널은 영상 최다 조회수가 2만 명이

넘는 등 나름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도서관이 문을 닫게 되면서 생각한게 유튜브 방송이었어요. 작은도서관은 휴관 중이어도 이렇게 다할 콘텐츠가 없으니 유튜브를 운영하는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거창한 거 없이 일단 도서관에 못 오는 아이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매일 블로그나 도서관 밴드에 홍보를 하니 점점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학교 수업 자료로 사용하고 싶다고 근처 학교 선생님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냥 책을 읽어주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노력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요즘에도 주민들은 빈틈없이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도서관을 책 읽는 공간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모두가 어울리며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다울. 운영진 덕분에 오늘도 홍성군 일대의 독서문화는 나날이 발전 중이다.



##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책 사랑방으로

다올은 관장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7명이 운영한다. 김 관장은 운영 초반부터 사비를 들여 도서관을 만들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칠 때도 있다. 최근에 후원계좌를 개설해 후원금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바쁜 실정이다.

“지역 주민을 위해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은 무궁무진해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운영비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현실이 아쉬워요. 국회의원도 만나고, 지자체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존재해요. 다올 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들이 예산 걱정 없이 마음껏 나라를 펼칠 수 있는 날을 기다려요.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세상이지 않을까요?(웃음)”

다올은 지금처럼 지역 주민과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며 작은도서관이 갖는 평생교육시설의 역할에 조금 더 집중할 예정이다.

“평생교육법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되어요. 도서관법에도 평생교육공간임을 강조하고 있죠. 큰 공공도서관은 아무래도 대출·반납이 주가 될 수 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작은도서관은 통계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다올은 앞으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며 모두가 이용하는 평생교육공간으로 주민들과 오랜 시간 함께할게요.”

정년 퇴임한 중장년층은 청소년·성인에게 삶의 지혜를 건네고, 청소년은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우애를 쌓고, 어르신들은 삶의 새로운 활력을 찾는 곳으로 전 연령층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다올책사랑방 작은도서관. 평생교육공간을 지향하며 주민들과 함께 성장해나갈 앞날을 기대해본다.



# 나의 이야기가 책이 되는 공간

애기똥풀 작은도서관

애기똥풀은 봄부터 초겨울까지 사시사철 피는 꽃이다.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곳곳에 피어있어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식물이다. 애기똥풀처럼 지역 주민들의 곁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싶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자리한 애기똥풀 작은도서관을 직접 찾았다.



운영

평일 10:00~18:00  
(주말, 법정 공휴일 휴관)

주소

경기 구리시 인창동 343-3 성윤빌  
딩 3층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 언제나, 어디서든 피어나는 독서문화

도서관이 위치한 인창동은 다가구 빌라, 건물 상가 등이 많은 전형적인 구도심이다. 유동인구가 유난히 많은 경의중앙선 구리역 3번 출구, 굽이 굽이 골목을 쭉 따라 걸어 들어오면 이 지역의 생생한 이야기가 피어나는 애기똥풀 작은도서관이 보인다.

애기똥풀은 평소 작은도서관에 관심이 많았던 한은희 관장이 책과 함께 성장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지역 주민들과도 독서문화를 나누고자 도서관을 만들었다. 2001~2006년까지 아차산 근처에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했다면, 2007년부터는 인창동에 새 등지를 틀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독서문화를 이끌고 있다.

도서관명인 ‘애기똥풀’은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의미가 담겨 있다. 사계절 내내 피고 지며 야산, 들판 등 흙이 있다면 어디든 뿌리를 내리는 꽃이다. 한 관장은 어디서든 끊임없이 피어나는 애기똥풀의 근성에서 운영의 방향을 찾았다고 한다.



“한 번 들으면 잊기 어려운 명칭으로 처음에는 아이들이 우스꽝스럽다며 웃기도 했어요. 애기똥풀은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스치는 풀이지만, 알고 나면 정말 지천에 피어있는 꽃이더라고요. 우리 도서관도 이용자와 계속해서 독서문화를 꽃피우고 싶다는 마음에서 짓게 되었어요.”

여느 작은도서관과 다르게 애기똥풀은 성인이 주로 이용한다. 서가 또한 성인 도서 비율이 훨씬 높다. 아이들이 모두 성장해 시간적 여유가 생긴 엄마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엄마들은 육아에서 벗어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삶의 새로운 여유를 찾는다.

■ 주민들의 재능으로 만들어진 다채로운 동아리

애기똥풀은 정숙을 요하기 보다는 약간은 떠들썩한 도서관을 지향한다. 도서관을 찾은 아이들은 자유롭게 즐기고, 어른들 또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공존하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나가고 있다.



애기똥풀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친다. 매년 진행되는 출판《꿈의 학교》는 해마다 아이들과 책을 만들어 총 6권을 출판했다. 올해는 E-BOOK으로 제작해 이용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을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답게 애기똥풀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다. 동네 인맥을 모으고 모아 재능기부로 문화프로그램이 탄생한다.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다 뛰어난 영어 실력이 소문나 영어 동아리를 운영하게 된 활동가, 애기똥풀에서 받은 위로로 공연으로 보답해주고 있는 인디 가수, 타고난 손재주를 살려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책놀이를 펼치는 엄마들. 이렇게 애기똥풀은 인적네트워크의 보고가 되어 사람책을 축적해간다.

애기똥풀의 자랑할 점은 다양하면서도 활발한 동아리다. 도서관 개관과 동시에 시작한 장수 독서동아리 동화읽는어른, 영어를 잘하는 회원이 만든 영어 동아리, 문학을 사랑하는 엄마들이 모여 만든 희곡 동아리, 가족과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상담 심리 동아리, 부부가 함께 책을 읽는 독서동아리, 청소년이 모여서 글을 쓰는 글샘 동아리 등 다채롭다.

애기똥풀은 역사가 길다 보니 동아리도 대부분 10년 이상 함께하고 있다. 오랜 시간 지내온 회원들은 책을 읽는 것에만 안주하지 않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회원들은 각자 색깔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소중한 창작물들도 제작했다. 이외에도 동아리 성격에 맞춰 시 동아리는 시 낭송회를, 희곡 동아리는 희곡 낭독 공연을 진행해 마을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애기똥풀의 동아리는 대부분 장수 동아리예요.



긴 세월동안 같이 책을 읽으니 자신감도 많이 생기셨대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무언가를 표현하고, 기록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신거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도서를 출판하기도 해요. 운영자 입장에서선 고마울 따름이죠. 또 연말에는 한 해 동안 활동한 내용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구요.”

이렇듯 역동적인 운영을 자랑하는 애기똥풀은 지역의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에도 큰 관심을 기울인다. 구리시작은도서관협의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한 관장은 구리시에 새로운 작은도서관이 생기면 직접 방문해 협의회에 대해 알리고, 가입을 권유한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운영하면서 생긴 어려움은 이용자나 회원이랑은 나누기 어렵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얼마든지 작은도서관을 행복하게 운영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작은도서관의 발전



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생각으로 도서관을 찾아다녔죠. 현재 구리시의 사립 작은도서관 12개관 중 9개관이 가입돼있어요.”

구리시작은도서관협의회는 새로운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의 작은도서관 부흥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 ■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도서관을 꿈꾸며

18년 동안 주민들의 곁을 지키고 있지만 도서관 운영 전반을 맡고 있는 한 관장은 한 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다. 한 관장 몸매 이상이 생긴 것이다. 건강 문제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도서관을 맡아줄 사람을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문을 계속 닫아둘 수는 없어 무의미한 운영만 반복할 무렵,



한 모녀가 도서관에 찾아와 책 읽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 번 열정을 키웠다.

“그 당시 몸도 안 좋았지만 도서관 운영에 대한 회의감도 함께 왔어요. 운영비, 임대료 걱정으로 많이 힘들었죠. 그때, 그저 도서관 문을 열어뒀을 뿐인데 책을 읽기 위해 와준 모녀가 정말 고맙더라구요. 새로운 원동력을 얻은 것 같았죠.”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 다시 활기차게 문을 연 애기똥풀은 더 많은 독서문화 전파를 위해 노력한다. 앞으로 도서관은 은퇴 이후에 여가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0~60대 세대인 액티브 시니어에 집중해 운영할 예정이다. 은퇴 연령이 점점 젊어지면서 ‘액티브 시니어’가 증가하는 추세로 애기똥풀도 이에 발맞춰 시니어를 위한 공간, 문화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있다. 우리 모두 미



래의 액티브 시니어라는 생각으로 모든 세대와 소통을 강조하는 도서관을 만들고 싶은 것이 한 관장의 생각이다.

이외에도 극장식 도서관, 라디오 방송국 도서관을 꿈꾼다. 애기똥풀에서 진행하는 동아리들을 바탕으로 연극 공연을 진행하고, 마을의 소식과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전하는 라디오 채널을 만드는 것이 애기똥풀이 하고 싶은 일이다.

구리시의 역사가 깊은 작은도서관으로 모범적인 역할을 펼치고 있는 애기똥풀 작은도서관. 운영진들의 지치지 않는 열정의 원동력은 ‘주민들이 도서관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 원동력으로 주민들의 든든한 친구이자 가족으로 오랜 시간 인창동의 안식처로 빛나주길 기대해 본다.



## Part. 03

---

###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이야기

비대면 서비스 공모전

작은도서관 아무튼, 독서

작은도서관 운영기초 FAQ

“

## 비대면 서비스 공모전

2020년 9월 진행한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비대면 서비스 공모전에서 선정된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비대면 서비스, 프로그램, 동아리까지 다양한 수상작을 살펴보고 도서관 활동 계획에 참고하세요.

”

## 기성 작은도서관

시를 읽은 그대에게

### SNS 시 나눔 동아리

온 세상이 코로나19와 원치 않는 동행을 할 수밖에 없는 요즘, 그래도 이용자와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핸드폰 채팅방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아하! 이거다’ 싶었습니다. SNS를 활용해서 작은도서관 시 동아리를 운영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험처럼 동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굳이 본명을 밝히지 않고 평소 좋아하는 시인들의 이름으로 참가를 유도했고 조기신청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진행 순서는 동아리 30분 전에 ‘시를 읽은 그대가 있는 금요일입니다’라고 공지를 하면 진행자가 주제 시를 먼저 올립니다. 그 후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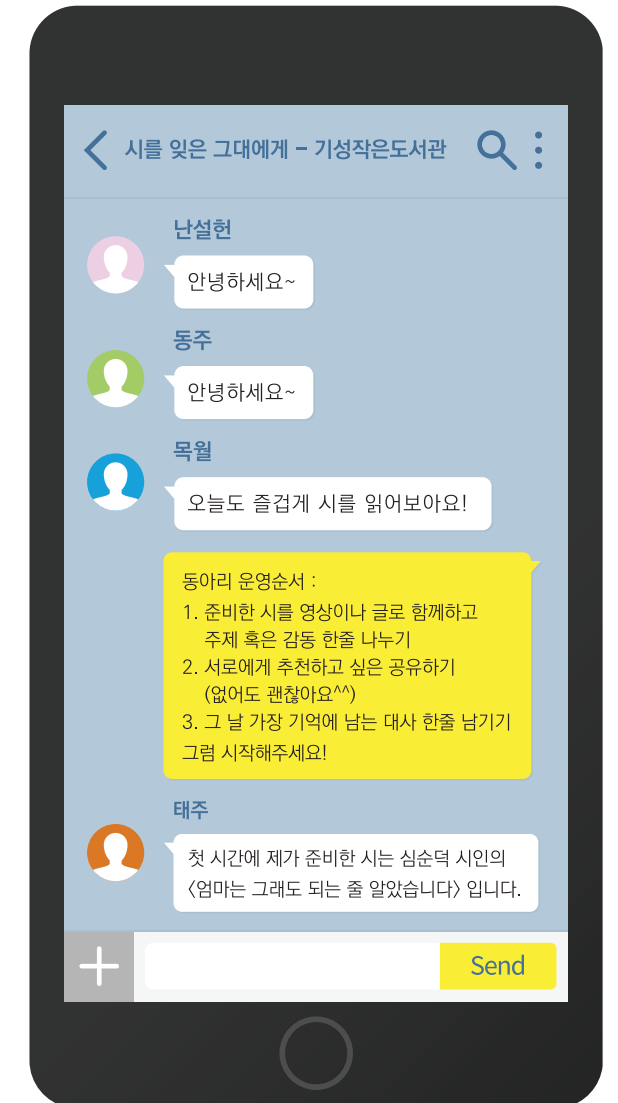
에 관련한 노래, 낭독 등의 영상을 함께 보며 시인과 시에 대한 정보를 연습니다. 그리고 각자 준비한 시를 읽고 소감을 나누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동아리 마지막 차시에는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제가 소월이었습니다.”, “제가 난설현이었어요”라고 본인을 밝히면서 재밌고 반가운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소감을 물어보니 오히려 비대면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 없이 편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었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도하는 채팅 방식에 타자 속도가 느린 회원들은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진행자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었고 회차를 더 해 갈수록 자연스럽게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속도가 느린 회원은 기다려주기도 하는 등 오프라인 동아리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을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용자를 만나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

던 중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길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번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이 공모전을 통해 우리 기성 작은도서관은 이렇게라도 이용자와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 열린숲 작은도서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환경을 사유해보는 열린숲 강좌

### 온라인 비대면 강좌

안녕하세요! 열린숲 작은도서관입니다. 열린숲 강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환경을 사유해볼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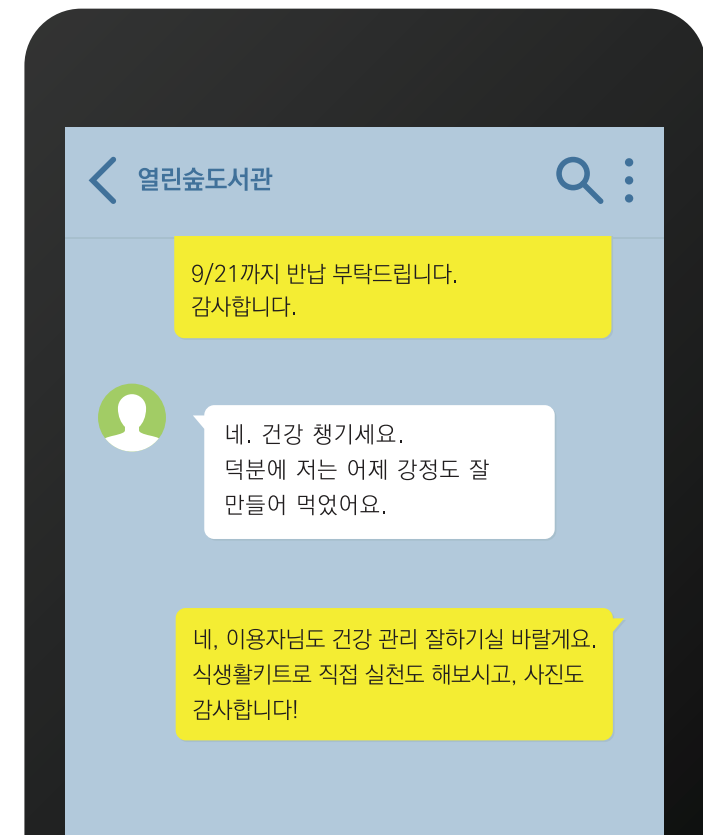
첫 번째 프로그램은 '도시농업과 마을 부역을 잇다'를 주제로 「나쁜 식탁 vs 건강한 밥상」 책을 읽었습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먹거리를 주제로 도시에서 농업 생산물을 소비하고, 재순환하는 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환경을 지키고 지역의 공동체 문화 회복을 위해 참여자들과 고민을 나누며 방안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 일일 : 플랫폼 자본의 현실을 진단하고 공동의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을 주제로 「플랫폼 자본주의」 책을 중심으로 이용자들을 만났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배송, 비대면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맡은 심성보 연구원은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통해 플랫폼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 다수가 누릴 플랫폼 사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참여

자들과 함께 공동의 미래를 위해 건강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이 궁금한 점을 열린숲 SNS 채널로 질문하면 강사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의 답변을 하는 소통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비록 온라인 공간이지만 오프라인 강의 못지않게 참여자들이 열심히 참여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여는 비대면 온라인 강좌라 음향, 영상 업로드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했지만 참여자들이 이해해주셔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은 물론,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 도서관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활발하게 이용자들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 매화 작은도서관

## 몽당연필

### 온라인 필사 동아리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도서관을 위해 또 이용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를 운영진들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긴 듯한 상실감으로 지쳐가던 무렵 온라인 동아리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때마침 그림책에 관심을 보이는 이용자들이 많아서 비대면 온라인 그림책 필사 동아리 몽당연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동아리는 7명의 회원을 시작으로 3개월째 꾸준히 필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은 아이들만 읽는 책인 줄 알았는데 직접 읽어보니 알아갈수록 매력 있는 책들이 많으며 즐거워 해주십니다. 도서관에 있는 그림책 대출 비율도 눈에 띄게 오를 만큼 다들 그림책의 매력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회원들은 필사로 인해 책을 깊게 알 수 있어서 좋았고, 한 문장씩 쓸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하십니다. 거기엔 0세부터 100세까지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림책이 큰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같이 '멈춤'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도서관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나름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눈앞에 막다른 길이 있다면 앉아서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왔던 길을 돌아 다른 길을 찾아가거나 계속 묵묵히 가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매화 작은도서관은 막다른 길이 생겨도 계속 새로운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분명 방법은 있고, 이용자들은 그런 도서관의 손을 잡아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좋은 경험이 되었음을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 키작은소나무숲 작은도서관

슬기로운 독서생활

## 온라인 대출 / 집앞 배송 서비스 / 예약 방문 서비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무기한 연장 발표로 인해 도서관 운영이 전면중단되었을 때 온라인 대출신청 서비스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작은도서관은 집 근처 도서관이라는 특징이 있어 이 점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 집앞 배송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책꾸러미(대출신청도서, 독서일지, 만들기 키트 등)를 안내문과 함께 가방에 담아 이용자 문 앞에 걸어둡니다. 배송 후 이용자에게 알림 문자 전송을 하면 이용자는 확인 문자를 보냅니다. 이 과정은 분실을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현재 일주일에 1번씩 시행하고 있으며, 매주 이용자들에게 도서관 운영을 문자로 공지합니다. 아이들의 원격수업에 도움을 주고자 초등학교 권장도서와 교과서 수록 도서를 대부분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대출서비스 외에도 온라인으로 책을 고르는 것에 한계가 있는 이용자들에게 도서관 예약 방문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30분 간격으로(20분 도서관 이용, 10분 환기) 예약을 받고 철저한 방역 후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을 측정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많은 이용자가 신청해주셨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지금, 작은도서관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맞이하게 된 비대면 사회에 작은도서관도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려 합니다. 계속 성장해나갈 작은도서관을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마스크를 벗고 이용자들을 환히 맞이할 날을 위해 열심히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 비대면 서비스 공모전 수상작 목록

순위	도서관명	부문	프로그램명(또는 동아리명, 서비스명)
1	기성 작은도서관	동아리 활동	시를 읽은 그대에게
	열린숲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환경을 사유해보는 열린숲 강좌
2	매화 작은도서관	동아리 활동	몽당연필
	키작은소나무숲 작은도서관	서비스 운영	슬기로운 독서생활
3	꿈나래 어린이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꿈나래 추천도서, 도전! 100권 읽기!
	한국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한달한책 댓글 릴레이
	열린점자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열린점자DIY교실 : 휴대용 손소독제 만들기
	세곡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내생애 그림책
	달서다문화가족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다문화 특별 프로그램 : 달다 (달콤한 색으로 그리는 다문화)
	키작은소나무숲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재미있는 독서생활
	꿈마루 도서관	서비스 운영	슬기로운 독서생활
	함께하는사랑밭그림책 도서관 1호점	서비스 운영	땡땡 집에서 만나는 그림책 도서관
	다올책사랑방 작은도서관	서비스 운영	온라인으로 만나는 선·후배 멘토링
	팔판빛오름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폐기되는 그림책 업사이클링 활용법

## 작은도서관들의 비대면 서비스 활동

금촌무지개 작은도서관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도서관으로 떠나는 세계문화 체험 및 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다올책사랑방 작은도서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선·후배 멘토링 수업을 위해 영상을 제작 중이다.

열린점자 작은도서관



코로나19 상황에 필수품인 휴대용 손소독제를 만드는 아이들의 모습이다.

새터전 작은도서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아동 부모를 위한 독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포레스트 작은도서관



비대면 대출 서비스 지바프로(집앞으로) 운영 모습이다.

판교이지더원 작은도서관



아이가 가정에서 영어동화 온라인 특강을 수강하고 있다.

오뚜기 작은도서관



주민들에게 도서를 배달하기 위해 운영진이 책을 소독하고 닦고 있다.

하늘채 작은도서관



하늘채 책친구 동아리 회원들이 각자의 집에서 도서를 읽고 있다.



“

## 작은도서관 아무튼, 독서

2020년 6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작은도서관 아무튼, 독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휴관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작은도서관들과 이용자들은 지치지 않고 책을 읽었습니다. 독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작은도서관들의 책 이야기 살펴보고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관계자부터 이용자까지 모두 이용 가능한 홈페이지에서 열리는 이벤트에 참여하고 상품도 드립니다.

”

### 전라북도 남원시 새싹 작은도서관



도서관 선생님 그림책 읽어주세요!

2020년 유치원 개구쟁이들과 처음 만남이지요.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손 소독을 마친 후 「머리 감는 책」을 함께 읽어요. 동물들이 머리를 감고 있지요. 모두 머리 감는 표정, 모습이 재미나지요. 만남으로 즐겁게 함께하니 참으로 고맙지요. 3세 때부터 여러 해 도서관을 이용한 개구쟁이들이 이제는 제법 그림책으로 친구가 되었어요.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의 나라가 깊고 넓어져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한없는 사랑을 내어주는 친구 되길 소원합니다.

### 전라남도 목포시 무지개 작은도서관



우리 도서관 최고령 이용자이신 90세 조연심어머니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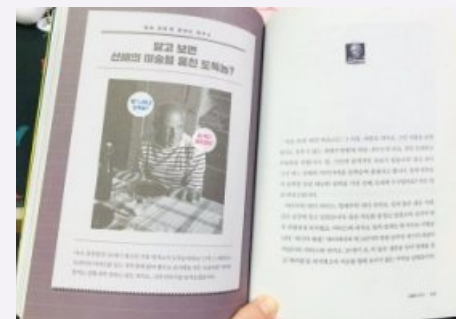
집 가까이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좋다는 조연심어머니의 책사령! 해마다 진행되는 독서마라톤에도 참여하시고, 토지도 완독하시는 등 500권이 넘는 독서를 하고 계십니다. 눈이 아파서 오래 책을 읽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이제는 초로의 자녀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다는 조연심어머니는 우리 도서관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연륜을 품고 있는 주름진 어머니. 부디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도서관에 오시기를 기원합니다.

### 대구광역시 반야월어린이도서관 아띠



「어린이 인성 사전」은 어린이들에게 추상적인 가치와 개념들을 편안하게 전달하기 위해 작가의 동시와 작가가 평소 마음에 품어온 동시들을 실었다. 무언가를 느끼고 알게 되었다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책에 실린 가치와 덕목을 체화시켜 각자 실천해 보기를 권한다. 「어린이 인성 사전」이 요즘을 사는 어린이들에게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고민하며, 매 순간 깨어 있는 존재가 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 전라북도 전주시 어울림 작은도서관



「방구석 미술관」은 가볍고 편하게 시작하는 유쾌한 교양 미술서입니다. 특히나 미술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려워져 친해지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예술가들의 삶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그들의 작품들이 현대 미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미술관에 가지 못하거나 미술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 재미난 미술작품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늘샘어린이도서관



영화 보러 가기도 겁나는 일상에 이 책을 읽고 있으니 꼭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오싹하기도 했어요.

주변에 참혹하리만큼 잔인한 상황들을 보면서 범죄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했는데 이수정 범죄심리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은 알 수 있었어요. 나와 자녀를 그리고 우리 사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작은도서관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힘내셨으면 합니다.

## 경기도 안산시 신길새별 작은도서관



요즘 신길새별은 서머싯 몸 작가의 작품에 빠져있습니다. 서머싯 몸의 책 중 인생의 베일은 고전문학을 이제 막 읽기 시작하는 입문자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스토리도 굉장히 긴장감 있어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 “ 작은도서관 운영기초 FAQ ”

작은도서관홈페이지 운영 이래 가장 많이 접수된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도서관 운영부터 관련 법령까지! 작은도서관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보세요!

작은도서관 등록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작은도서관은 자율적으로 원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에 따른 시설기준(장서 1,000권 이상, 면적 33 제곱미터, 열람석 6석 이상)을 갖추고 각 지자체 담당자에게 등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작은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건물이 정해져 있나요?



건축 근거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단독(1층만) 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에만 설립 가능합니다. 이외의 종류는 용도변경 후에 설립 가능합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운영을 위해서 사용료를 받아도 되나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무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 차원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리 프로그램(KOLASYS-NET, 책꽃이 등)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작은도서관에서 사용 가능한 도서관리프로그램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KOLASYS-NET)이 있습니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은도서관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여 소장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등록·관리 및 대출·반납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지원서비스 웹사이트(books.nl.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서관등록증 사본과 도서관 부호가 필요하오니 이 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도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되나요?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추가되어 해당 항목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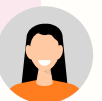


작은도서관을 자원봉사처로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 사이트에서 자원봉사수요처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등록 방법은 각 홈페이지에 문의 바랍니다. 외에도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요처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vms(www.vms.or.kr)
- 문화품앗이(csv.culture.go.kr/)
-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작은도서관 장서점검 및 제적과 폐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 작은도서관에서 해마다 장서점검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기를 정하여 (예를 들면 3년에 한 번 등) 장서점검을 하여 자료등록 원부에 의한 자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자료의 파손이나 장비 상태를 점검하며,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를 파악하여 서가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료의 제적과 폐기는 도서관법에 의거해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작은도서관 로고(CI)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smalllibrary.org) > 서비스 소개 > CI 안내 페이지 > 화면 중간 우측 [요청하기] 버튼 클릭 후 도서관 등록증 스캔 파일을 첨부하셔서 요청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리자 확인 후 CI 파일(파일형식 ai & png)을 보내드립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등록증이 없으므로 요청공문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전송드리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공모사업, 교육 공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smalllibrary.org) > 운영도우미 > 공지사항 또는 시군구청, 지역의 문화재단,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지는 수시로 확인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중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smalllibrary.org) > 운영도우미 > 질문과답변에 문의하시거나 02-515-1178, smalllibrary.org@gmail.com 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 좋은 책 한 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산간벽지 · 농어촌 · 섬마을에 사랑의 책 한 권을 보냅니다!



Since 1987



## 학교마을도서관 개설

농어촌, 산간벽지, 섬마을에 학교도서관을 개설합니다.



## KB작은도서관 조성

KB국민은행 후원으로 국민생활 가까운 곳에 독서문화공간을 조성합니다.



## 찾아가는 책읽는버스

KB국민은행 후원으로 도서관이 없는 농산어촌 마을을 찾아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강남구립도서관 16개관 위탁운영

지역사회 복합문화 공간의 역할을 하는 강남구립도서관을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운영 · 실태조사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위탁으로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운영 및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를 하는 등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언론 공동캠페인

2008년부터 동아일보, 강원일보, MBC, 한국일보 등 다수의 언론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0 작은도서관 이야기

발행일 2021. 11

기획 최민희

취재, 글 배현정

발행인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발행처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주소 서울 강남구 학동로 169

전화 02-515-1178

팩스 02-515-1156

이메일 [slibrary@naver.com](mailto:slibrary@naver.com)

홈페이지 [www. smalllibrary.or.kr](http://www.smalllibrary.or.kr)

ISBN 979-11-966805-2-7